

2018년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부산
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

LOOK INTO THE BOOKS MADE IN BUSAN

부산
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

부산 지역 출판사(가나다 순)

 꿈공작소	 낭이의아용	 너나드리	 도시출판 두손컴	 소요-You	 도시출판 스토리팜
 도시출판 신생	 도시출판 전망	 도시출판 도요	 도시출판 청옥문학사	 도시출판 푸름사	 도시출판 해성
 도시출판 호밀밭	 리딩소년	 몽명(Mon temps)	 문장21	 비온후	 빨간집
 산지니	 서른세계의계단	 시와사상사	 육일문화사	 인디페이퍼	 작가마을
 참과학	 책읽는저녁	 책퍼낸열린시	 포엠포엠	 해피북미디어	 해광출판사
 해암출판사	 호랑이출판사				

2018년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책 잔치에서 보물을 발견하다』 ... 004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를 펴내면서 ... 005

시 ... 007

소설 및 에세이 ... 041

아동 ... 063

인문 사회 자연 ... 067

실용 ... 089

기타 ... 093

부산 지역 출판사 안내 ... 098

출판사별 2018 신간도서 리스트 ... 104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안내 ... 110

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안내 ... 111

『책 잔치에서 보물을 발견하다』

책을 고를 때, 어떤 정보 경로를 통하는가. 정보의 유형에 따라 우리는 수 많은 책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매체를 통해 언급된 책은 하루 아침에 관심을 받고, 베스트셀러 역시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형 메이저출판사의 책들만 알게 된다. 자본의 힘이 큰 출판사에서 펴내는 책들이 다양한 매체에 많이 노출되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는 의미가 크다. 이 책은 부산 지역 출판사의 책을 한 권에 모아 소개한다. 책표지와 짧지만 내용을 간결명확하게 전하는 서평을 수록했다. 부산에 어떤 출판사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책을 내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부산 작가들의 활동, 부산에서 일어나는 담론도 알 수 있다. 부산의 출판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부산의 출판사들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독자들이 책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손실이다. 부산문화재단이 지역 출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이 책을 만들고 있어 참으로 고맙고 미덥다. 지난해에는 부산 지역의 각급 도서관 사서들이 이 책을 중요한 서지도구로 활용했다고 한다. 책을 수서하는 사서들은 물론 시민들도 책자 형태, 웹페이지 형태로 이 책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부산의 출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린 책 잔치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를 펴내면서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미와 지혜를 담은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부산 출판사의 도서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소중한 도서 자료 아카이빙을 위하여 본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책자에는 부산의 32개 출판사가 2018년도에 출간한 240여 종의 신간이 수록되었습니다. 각 출판사의 책은 시, 소설(에세이), 아동(그림책), 인문사회자연(경제경영, 역사, 예술, 자연과학 등), 실용(자기개발, 여행, 외국어 등), 기타의 여섯 개 장르로 분류해 독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출판사들이 내놓은 다양한 책들은 부산시민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이 책자를 통해 지역출판의 선두에서 문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부산 출판사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지역의 출판사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혹 참여하지 못한 지역 출판사는 내년 제작예정인 안내서에 실릴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TEL. 051-745-7287 E-mail. mia0311@bscf.or.kr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시

/

Poetry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



물의 경전 오정환 지음

오정환 시인은 그야말로 서정시의 근본을 오롯하게 지켜온 시인이었다. 그는 가볍게 쓴 시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시를 함부로 짓는 일을 거부해왔다. 이번 유고시집 『물의 경전』에서 물은 일종의 종교적 세계의 식과도 같은 순결함이 있다.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노자의 철학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물은 이른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소재가 된다.

도서출판 신생 | 160쪽 | 12,000원 | 2018. 12.



청산따라 인연 김만수 지음

여공 김만수 시인의 본래면목이라는 형체를 시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작가의 선정 수행 속 고뇌를 사바세계에 알리고자 나름대로의 도라는 완성품으로 산과 물, 하늘을 품어 스스로의 깨우침을 글로 옮긴 것이다. 우선 신선한 시풍에 모든 독자들의 심신이 안정되고 보리를 얻은 후 중생이 함께 여래의 본성에 가까워진다면 결국 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한다.

두손컴 | 112쪽 | 10,000원 | 2018. 03.



바다의 별 최귀례 지음

나의 시론은 어쩔 수 없이 흠의 이미지와 파운드의 회화적 기법과 엘리엇의 슈르 방법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흠의 『가을』이 가져다주는 심상에 매력을 느꼈고 파운드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시적 기법에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엘리엇이 앞서 걸었던 이미지에 대한 과감한 변용을 통해서 나의 시가 쓰여질 수 있었다.

도서출판 전망 | 128쪽 | 10,000원 | 2018. 08.



슬로시티 김종목 지음

삶과 자연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낸 김종목 시인의 네 번째 시조집.

산지니 | 132쪽 | 12,000원 | 2018. 06.



뿌리 찾기 김석주 지음

1986년 '시의 길' 1집으로 리얼리즘시를 주로 써온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항일시를 써, 일본으로 가 거리 시화전을 열 만큼 실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집 『뿌리 찾기』 또한 시인의 그러한 현실 중심의 시편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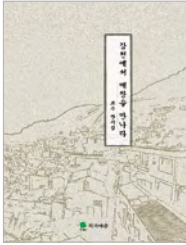
작가마을 | 158쪽 | 10,000원 | 2018. 08.



내 마음의 풍경 박연희 지음

화가 시인으로 소중하고 진실한 삶을 그리며 모든 일을 귀하게 생각해 섬기는 마음을 절실하게 행동하려 오늘도 어제도 나를 다듬는 노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 시집을 만들었다.

청옥문학사 | 137쪽 | 10,000원 | 2018. 08.



감천에서 매창을 만나다 보우 지음

근자에는 쉬이 만날 수 없는 한시집. 특히 이번 한시집 『감천에서 매창을 만나다』는 자유시를 써온 보우 시인이 조선의 기생시인 매창의 시에 매료되어 ‘한시’의 매력에 빠져들어 한시공부를 새롭게 하였다. 이번 한시집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보우님은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관음정사’ 주지로 있다.

작가마을 | 158쪽 | 12,000원 | 2018. 10.



발자국 정원석 지음

『발자국』은 정원석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겸 시화집이다. 그는 유망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 시인으로 직접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현장을 누비면서 촬영도 하고 순간 떠오르는 시상을 시작노트에 메모한 것들을 모아 칼라화보와 함께 시화집으로 엮었다. 총 95편의 시와 95편의 사진으로 구성된 이 시화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해 4부로 편집돼 있다.

해암출판사 | 207쪽 | 20,000원 | 2018. 07.



소실점 너머에(Photopoem) 김채은 지음 / 사진

포토포엠 『소실점 너머에』는 이모티콘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시대에 잠시 멈추고 느리게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얻는 위로를 담고 있다. 64편의 시와 김채은 작가가 직접 촬영한 28편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뿐만 아니라 사진마다 인간의 고뇌와 삶, 부산과 자연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잠깐이나마 이 시집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몰입할 여유를 갖기를 권한다.

두손컴 | 132쪽 | 15,000원 | 2018. 09.



난장이꽃 강정이 지음

강정이 시인의 시는 솔직하고 담박하다. 이 솔직함과 순수함이 그녀의 시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미덕이다. 이번 시집 곳곳에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물, 버림 받은 사람, 나라를 잃고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 가난한 소수민족, 일자리를 잃은 노숙자들이 나온다. 그녀는 이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정을 보내고 있다. 그 연민의 정은 모성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서출판 전망 | 112쪽 | 9,000원 | 2018. 12.



그림섬에 들다 손삼현 지음

〈부산시단〉 봄호에 신인상을 수상하여 등단한 손삼현 시인의 첫 시집. 손 시인의 시는 그림처럼 동양적 정취에 속해 있다. 시는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미적 쾌감을 전달해 주는 예술이다. 그렇기에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다.

책퍼냄열린시 | 144쪽 | 10,000원 | 2018. 10.



목단강 목단강 조성래 지음

조성래 시인의 겨울 만주 기행 시집이다. 시인은 눈 덮인 민가와 별판, 그리고 목단강 가는 눈길 위에서 만난 풍경들을 섬세하고 명징한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이 시집 안에 들어 있는 북방의 지명과 설화들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새롭게 확인시켜 준다. 멸망한 왕조의 터전이나 일제 강점기 고난극복의 현장에서 촉발된 이미지들이 애잔하면서도 짙은 향수를 자아낸다.

도서출판 신생 | 128쪽 | 10,000원 | 2018. 11.



당신을 읽는다 그림나무 지음

〈그림나무〉문학회의 다섯 번째 예술로지. 무엇 때문에 시를 쓸까 고민하지 않아도 시가 하나의 생활이 되다시피 한 마음에 시를 창작하고 낭송하고 시집에 짓어 생활하는 일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계기가 된다.

책피넛열린시 | 192쪽 | 15,000원 | 2018. 11.



박자를 놓치다 박정애 지음

박정애 시인의 일곱 번째의 시집 『박자를 놓치다』를 내놓는다. 바람과 비와 물, 허공과 새와 달로 대변되는 자연을 주제로 한 전체적 흐름은 당장 인간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득과 쓸모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있고 있던 고전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것인가를 전하고 있다.

도서출판 전망 | 144쪽 | 12,000원 | 2018. 12.



속명, 그 바다를 사랑한 죄 유기환 지음

극한적 상황을 극복한 처절한 대단원의 해양시편. 이 시의 저변에 깔고 있는 노스텔지어는 인간 정서의 본성이다. 오직 만경창과뿐인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바다를 헤매며 만선을 위한 일념의 정신력으로 버티지만 순간마다 다가오는 가족과 고향, 조국에 대한 가장 인간애적인 미학으로 아우르는 일련의 시행들이 전통적인 한국적 애항미까지 갖추고 있다.

도서출판 푸름사 | 124쪽 | 12,000원 | 2018. 11.



바람의 묘비명 박준홍 지음

전 부산MBC PD인 박준홍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박준홍 시인은 다섯 번째 시집 『바람의 묘비명』에서 자연과 사물의 특징, 모양, 행동 등에 의미를 부여해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1부 바람의 호미걸이, 2부 병어리 뼈꾸기, 3부 악동들, 4부 도시왜가리'로 구성되었다.

도서출판 스토리팝 | 129쪽 | 11,000원 | 2018. 06.



걸레 정소슬 지음

시집 『걸레』는 울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정소슬 시인의 시집이다.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민족연합 회원으로 활동하는 시인으로 시의 주 소재가 민족과 주변부 사람들의 현실적 삶의 터에 맞추고 있다. 이번 시집 『걸레』도 현대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리얼리즘시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마을 | 124쪽 | 10,000원 | 2018. 09.



자고 가는 바람아 윤주동 지음

시인 윤주동의 시들은 군중 속으로 다가와서 사사롭거나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화두를 같이 나누는 장으로 향하고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모든 외현은 현상적 사고와 결부된다. 시는 그런 화두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시는 우리의 속마음, 사랑과 기쁨, 노여움과 애착, 현상과 현상 사이의 존재적 윤리의식과 그 심오함에 관심을 둔다.

청우문학사 | 145쪽 | 12,000원 | 2018. 09.



농부와 시인 배갑철 지음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갑철 시인은 농부시인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백도의 갈대밭, 서낙동강변의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강물과 갈대밭과 흙 속에서 땅의 가치를 문학의 가치로 승화시키며 살고 있는 노력과 집념의 시인이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물, 손 흔드는 갈대잎, 한 없이 날아오르는 철새, 햇살과 바람 속에서 익어가던 알곡들은 고단한 농부시인의 삶을 위로하며 격려한다.

두손컴 | 208쪽 | 12,000원 | 2018. 01.



여정의 풍광 이광수 지음

『여정의 풍광』은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광수 시인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기록한 여행시집이다. 시집 전편이 마치 유명 여행지를 스케치하듯 쓰인 시들로 채워져 있다. 한 권의 시집을 통해 세계여행의 멋과 맛을 느껴볼 수 있다.

작가마을 | 126쪽 | 10,000원 | 2018. 12.



벽이 벽 너머에게 강준철 지음

개념은 사물 자체가 아니다. 감각기관을 통하여 얻은 우리의 의식은 허위이다. 참된 시는 사물의 해설이 아니라 사물의 진실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 시인은 언어의 제약을 벗어나 사물 그 자체이고자 한다. 리얼리티 획득을 위해 현대 시인들은 이미지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관념보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시집 『벽이 벽 너머에게』의 시는 그 배후가 특이한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시와사상사 | 147쪽 | 9,000원 | 2018. 11.



달빛 먹는 날 김선보 지음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작가가 한 손가락으로 혼을 담아 쓴 시집. 글을 쓴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작가는 병원에 있는 동안 도움 받은 간호사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마음에 담은, 애절한 시들을 모았다. 시집에는 환자들의 쾌유를 비는 마음도 오롯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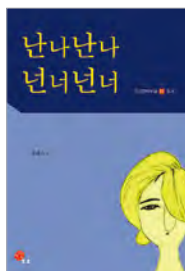
청옥문학사 | 124쪽 | 10,000원 | 2018.11.



오후 석 점, 바람의 말 김비주 지음

김비주의 시들은 시간을 체험하고 느끼는 존재가 시간을 보내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비망록이다. 변화무쌍한 상대적 세계에서 시간 또한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능력으로서는 붙잡을 수도 영원히 손에 쥌 수도 없는 묘연한 세월의 신비이다. 이런 점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속살을 매만지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나간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지금 이 순간 또한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의지가 생긴다.

도서출판 전망 | 160쪽 | 10,000원 | 2018. 10.



난나난나 너너너너 정일근 외 지음

도서출판 도요가 7년 동안 거르지 않고 내놓은 <도요문학무크>의 13번째 책. '독거'를 테마로 하는 이번 책의 이름은 유지소 시인의 시 제목에서 가져왔다. 평론가 정훈의 테마비평과 증견시인 정일근 최영철의 대답, 그리고 실중을 테마로 하는 시인들의 시편 수록.

도서출판 도요 | 231쪽 | 13,800원 | 2018. 06.



지리산 빈들판 민수호 지음

첫 시집을 내고 2년 만에 100여 편의 시로 다시 돌아온 작가의 신작 시집. 1951년 산청함양사건 당시 태어난 지 10개월의 것 난아이였던 작가는 부모님 등에 업혀 함양군 유림면 서주마을의 공동 집결에서 살아남은 때의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마음을 시집에 담았으며, 생명사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시집이다.

청옥문학사 | 194쪽 | 10,000원 | 2018. 06.



작은 섬 가로등 이상일 지음

오랫동안 수산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산양식 기술과 전문 서적 집필에 몰두해왔던 이상일 시인이 등단한 지 10여 년 만에 첫 시집 『작은 섬 가로등』을 발간했다. 불심이 남다른 이상일 시인의 이 시집에는 1부 관음의 미소 외 19편의 시와 총 4부 8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해암출판사 | 127쪽 | 10,000원 | 2018. 04.



저녁에 오는 사물들 한지혜 지음

한지혜 시인은 음성에서 따뜻한 차의 향기가 느껴진다. 사물들의 감촉과 향의 부드러움 속에서 문장을 아주 낮설게 배치하는 힘이 있다. 그러한 힘이 나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연륜이다. 한지혜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저녁에 오는 사물들』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감정의 반응이 끊임없이 겹쳐지기도 하고 흩어지면서, 온몸으로 감내하는 듯 한지혜 시인의 문장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

포엠포엠 | 136쪽 | 10,000원 | 2018. 11.



새소리를 듣다 손영자 지음

보고, 느끼고, 간직하기도 했던 일상들 알곡이 아님을 안다
그래도 한 흔적이라고 여기고 싶다
작은 앵무새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
새들이 주는 어여쁨과 즐거움을 알기에
시조집 제목을 『새소리를 듣다』로 하였다
- 손영자 시조집 『새소리를 듣다』 책머리에서 발췌

두손컴 | 112쪽 | 9,000원 | 2018. 11.



망부석 김석주 지음

1986년부터 30여 년 이상 시를 써온 김석주 시인이 시조의 세계에 빠져들어 펴낸 첫 시조집. 특히 현대시조의 특성을 살려 도시서정의 다양한 모습을 시조라는 형식에 담아내는 탁월함이 돋보인다. 오랜 시 쓰기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가마을 | 142쪽 | 10,000원 | 2018. 08.



무척억에 멈춘 비 박무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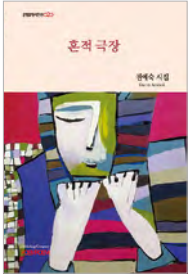
박무섭 시인의 작품은 풍자와 숨김을 통하여 교훈을 이끌어내고 정직한 삶을 지향한다. 풍자와 은유도 필요한 것이지만 시적 의미가 독자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내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책피넛열린시 | 144쪽 | 10,000원 | 2018. 09.



시의 전당 푸른 원두막 제3집 심예지 외 32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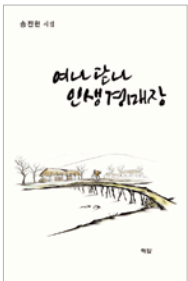
시창작 문예대학을 하면서 참여한 분들의 작품을 엮어 동인들의 마음을 담은 동인지. 문학의 길을 걷는 순수한 마음을 담았다.
청옥문화사 | 237쪽 | 10,000원 | 2018. 09.



흔적 극장 권애숙 지음

권애숙 시인의 시집 『흔적 극장』에서의 문장은 철저하게 개별화된 감각들의 군집이자 공백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내적 상흔을 뒤뜰면서 어떤 절실함과 절박함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여기서 뽑아낸 문장들은 익숙한 것들을 재배치하여 여지없이 낯설게 축조한 것이다. 호흡과 리듬이 과감하게 생략된, 시인의 문장은 빛나무에 창궐한 백색의 동공처럼, 세계가 비로소 눈뿔순간의 절대적 모순 속에서 태어난다.

포엠포엠 | 120쪽 | 10,000원 | 2018. 04.



여나 단나 인생경매장 송진현 지음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송진현 시인은 1995년 장편소설 『돌개바람』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송진현 시인의 처녀작 『돌개바람』이 발간됐을 당시만 해도 마스크로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송진현 시인이 이번에 발간한 『여나단나 인생경매장』은 그의 네 번째 시집으로 113편의 시가 게재돼 있으며 기항지, 낮익지, 낯설지, 격전지, 별천지, 체비지 등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해암출판사 | 158쪽 | 13,000원 | 2018. 09.



풀잎의 고요 변종환 지음

변종환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풀잎의 고요』는 문단생활 40여년의 사념들을 시로 엮어 펴낸 작품이다. 변종환 시인은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장 등 부산문단과 한국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손컴 | 120쪽 | 10,000원 | 2018. 09.



혹시 시인이십니까 신옥진 지음

짧고 간결한 시를 주로 써온 신옥진 시인의 시들은 마치 촌철살인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화랑을 운영하며 미술비평가 활동을 해온 시인의 시집으로 시와, 편집형식, 판형 등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시집이다. 그만큼 시인이 관습을 싫어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작가마을 | 120쪽 | 7,000원 | 2018. 05.



풀이 넘어왔다 조규욱 지음

조규욱 시인의 시들은 생활 밀착형이다. 그녀가 채택하는 시의 소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져온다. 그렇기에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다. 번뜩이는 삶의 지혜나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철학적 의미들이 내재해 있다.

책퍼냄열린시 | 128쪽 | 10,000원 | 2018. 10.



2018석교시조문학26인(양장) 최경식 외 25인 지음

26인의 시조시인 작품을 정형시조로 엮은 단시조 선집. 시조의 정통성을 이어 보려고 석교시조문학회에서 발행한 시조선집이다.

청옥문학사 | 216쪽 | 15,000원 | 2018. 09.



삶이 어땠냐고 물어온다면 신문호 지음

『삶이 어땠냐고 물어온다면』은 신문호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이다. 현재 부산 사하구 장립동에서 경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호 시인은 의사 시인으로 문단에 잘 알려져 있다. 『삶이 어땠냐고 물어온다면』에서는 신문호 시인이 병상에서 환자를 수술하면서 느꼈던 고뇌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투병하는 환우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암출판사 | 201쪽 | 10,000원 | 2018. 11.



그림자를 읽는다 최인현 지음

최인현의 이번 시집은 시적 상상력을 새롭게 읽는 맛을 던져준다. 부드러운 표현력 속에 내재된 이미지의 전환이 특이하다. 이 속에서 시인이 갖고 있는 시적 열정이 자신만이 추구하는 세계로의 승화로 점층으로 발전해나가는 작품성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을 만나는 뜨거움이 독자의 심금을 울린다.

작가마을 | 96쪽 | 9,000원 | 2018. 05.



한세상 인연들 목상에 들다 박무길 지음

박무길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한세상 인연들 목상에 들다』는 순수한 감성 안에서 여과되고 조율되고 자연과 인간애가 상징성을 지니는 사람 중심의 시로 보다 친화력을 가진다. 주지적 본질을 찾아가는 상황 인식도 존재 탐구와 긴장을 배제한 한국적 정서에 부리를 둔 언어 감각이 우선되는 우리 고유의 시어들에 균형 감각을 두고 있어 어떤 여유와 동행, 그리고 동류의식들을 주체화하는 깊이와 무게를 지니고 있다.

도서출판 푸름사 | 124쪽 | 12,000원 | 2018. 12.



새로운 인생 송태웅 지음

외롭고 쓸쓸한 내면의 풍경을 담백하게 담은 송태웅 시집.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160쪽 | 12,000원 | 2018. 09.



크산티페 김원용 지음

시인은 혼자만의 상상 속 경계선을 그어놓고 외출타기놀이를 하며 자신만의 시 쓰기 세계를 즐기고 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동시에 더불어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non zero섬 게임이다. 시인은 모든 대상을 나와 관련된 것에 우선하여 선택적으로 본다.

책피냄열린시 | 128쪽 | 10,000원 | 2018. 10.



거기, 밤바다가 있다 이기택 지음

제주도 출생인 작가는 시를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질곡의 삶과 부대끼며 생긴 생채기와 굳은살 박힌 아픔을 치유하고자 세상에 대해 뵈측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순화하는 노력을 시 속에 녹여냈다.

청옥문학사 | 147쪽 | 10,000원 | 2018. 11.



참치 하역사 김미순 지음

시집 『참치 하역사』의 시는 바다 경험을 매개로 내면을 성찰하고 외부로 묻는다는 점에서 시적 지평의 긴장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심리적 기제에 저항하며 상처의 기억을 표출하는 내면 언어가 불연속적인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쉽게 외부와 타협하지 않는 시적 긴장의 묘미도 적지 않다.

시와사상사 | 146쪽 | 9,000원 | 2018.10.



바람, 침묵의 감각 김미순 지음

굵은길도 걷고, 돌고 돌아가는 굵은 길도 걷고 울퉁불퉁 돌밭 길도 걷고, 아찔한 바윗길도 걷고 꽃으로 덮인 꽃산도 걷고 푸른 밀밭 바람도 만나고, 꽃향기를 날리던 과수원도 만나고 음악이 퍼지는 줄지어 선 나무숲도 만나고 따뜻한 찻집에서 숨 쉬는 뜨거움도 만났던 길. 어제를 내려놓듯, 묵언처럼 내려놓습니다.

두손컴 | 144쪽 | 15,000원 | 2018. 12.



들꽃처럼 못별처럼 최만공 지음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온 중등학교 교장 시인이 퇴직을 앞두고 펴낸 시집이다.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기념시집인 만큼 시집 전편이 교육현장을 소재로 한 시들이다. 한국해양대학교 구모룡 교수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시인의 내면적 의지가 강렬한 시집”이라고 추천했다.

작가마을 | 144쪽 | 10,000원 | 2018. 02.



술과 함께 강영한 지음

군사독재 시절에 울분을 삭이기 위해 한잔 술을 마시고 뒷골목에 버려져 썩어 썩아 울려진 연탄재를 사정없이 발로 찬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다. 연탄재를 차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런 술기운이 느껴지는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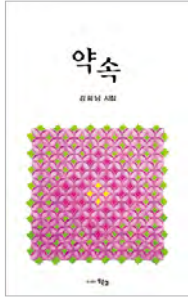
책펴냄열린시 | 112쪽 | 10,000원 | 2018. 11.



불고 춤추는 그곳에 김인태 지음

경남 함안 출생인 김인태 시인의 시집 『불고 춤추는 그곳에』는 1부 개나리 외 총 5부에 걸쳐 93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김인태 시인의 시는 소박하면서 단아한 심상이 그려지는 게 그의 시적 표현이고 특징이다. 그저 평범한 속에서 독특한 진수를 나열한 메타포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통증이 있다. 그러나 연고를 바르고 난 후 다시 새살이 돌아나는 언어를 앗히는, 이미 틀을 벗어난 독자적인 발상이 돋보이고 있다.

해암출판사 | 115쪽 | 13,000원 | 2018. 05.



약속 김희님 지음

김희님 시인의 첫 시집 『약속』을 읽는 마음은 배경에 서 있는 나무를 보는 느낌이다. ‘약속’이라는 제호부터 그렇다. 나무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예쁜 것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온 힘을 다해 표현한 열매와 꽃들을 아름다리 피워낸 것이 편편이 펼쳐진 시(詩)들인 것이다.

두손컴 | 104쪽 | 10,000원 | 2018. 12.



동재만고 정성진 지음

동재 정성진 선생의 한시를 한역 대역한 시집이다. 시인이 평생 써 모은 한시와 그 번역을 함께 하여 한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교과서적인 표준을 제공한다.

책펴냄열린시 | 432쪽 | 25,000원 | 2018. 06.



웃음에는 무게가 없어 강남주 외 19인 지음

시인이란 ‘이것이 나의 전부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시 한 편을 꿈꾸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는 멈추지 않는 관객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시인은 어둠 속에서 빛의 씨앗을 받아 제 시의 영토에다 뿌리고 거기서 새로 돋는 푸른 잎 한 장으로 시의 첫 줄을 시작한다.

도서출판 푸름사, 부산시문학시인회 | 216쪽 | 8,000원 | 2018. 11.



고요는 어둠 속에 자란다 이소정 지음

이소정의 이번 시집은 시인의 내밀함이 아주 돋보이는 시집이다. 대상과 대상을 넘나드는 행간들이 마치 고요 속에서 피는 꽃처럼 다정다감하다. 그만큼 세상을 읽어내는 시적 감각이 시인 특유의 상상력으로 담백한 서정성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마을 | 96쪽 | 9,000원 | 2018. 12.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정태운 지음

제1부 밤을 지새워 사랑 이야기 나누며, 2부 그리움에게 주는 편지, 3부 그대의 꽃이 되어, 4부 봄비 따라 오신다더니, 5부 와인과 우정 그리고 사랑 등을 엮어낸 시집. 사업가이나 청옥문학에 등단하여 시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작가가 어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시집에 담았다.

청옥문학사 | 235쪽 | 10,000원 | 2018. 05.



콩깍지 권명해 지음

『콩깍지』는 권명해 시인의 처녀 시집이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 머뭇거린 시의 여행에 설레임과 두려움이 앞선다.’고 첫 시집의 출판 소회를 밝힌다. 시의 여행을 감각적인 언어와 함께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시인의 시적 세계는 철저한 방법적 절제가 돋보이는 시들이 빛난다.

해암출판사 | 135쪽 | 10,000원 | 2018. 10.



낙동강 연가 손순이 지음

지금도 부산 시내에서 강서구 쪽으로 가려면 구포다리를 건너간다. 지하철에서 마땅히 시선을 둘 곳 없어 눈을 감고 있다가 낙동강이 보이면 가슴이 설렌다. 강에 동동 떠다니는 오리를 보면 옛 친구인 양 반갑다. 시상이 저절로 떠올라 시를 읊어본다.

- 「생명의 고향, 낙동강」 중에서

두손컴 | 164쪽 | 12,000원 | 2018. 07.



순회하는 강 조영희 지음

조영희 시인에게 바다와 섬사람들은 평생에 고향이고 시(詩)다. 현재 부산 강서구에서 천성보건진료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영희 시인은 민조 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낭송가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조영희 시인의 제11시집 『순회하는 강』은 민조 시집으로, 총 123편의 시를 10부로 나누어 수록했다.

해암출판사 | 208쪽 | 15,000원 | 2018. 10.



우만의 이야기 아홉번째 정경삼 지음

밀양에서 소를 키우는 우만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 삶의 터전을 누비며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바들이 씨앗이 되어 건장하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면서 쓴 시들이다.

청옥문학사 | 148쪽 | 10,000원 | 2018. 10.



왼쪽의 감정 이진해 지음

시집 『왼쪽의 감정』은 이진해 시인의 세 번째 시집으로 절제된 시어들과 오밀조밀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시집이다. 무엇보다 문학적 높은 순수 작품들이 65편 실려 있다. 또한 독자들의 선입견을 없애고자 일반적인 시집 해설을 신지 않고 시인의 딸이 시를 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4에서 기술하고 있다.

작가마을 | 144쪽 | 10,000원 | 2018. 10.



흔돈을 비켜가다 박윤자 지음

박윤자 시인은 결코 가볍지 않은 언어를 갖고 있다. 그동안 삶의 깊이와 넓이를 아우르는 폭넓은 언어이기에 그렇게 느껴진다. 이 시집에서 5년간의 정진의 결과물로서 그동안 고심의 흔적을 세상에 내놓는 시인의 진솔함이 느껴진다.

책피넬출판사 | 144쪽 | 10,000원 | 2018. 12.



가만히 먼저 짓는 오후 권순해 지음

시창작의 길을 겸허하게 걸어온 권순해 시인이 앞으로 구현하고 힘을 쏟을 자신의 문학관을 조심스럽게 선보이는 시집. 시인은 그간 성실하게 다져온 오랜 내공의 연마에 힘입어 삶의 긍정, 포용, 대승적 화해라는 소중한 명제를 이 시집에 담았다.

포엠포엠 | 110쪽 | 10,000원 | 2018. 10.



불면은 적막보다 깊다 김정순 지음

경남 사천에서 활동하는 김정순 시인의 시집 『불면은 적막보다 깊다』는 삶의 연륜이 고스란히 담긴 빼어난 작품들로 독자들의 시선을 끈다. 단순히 연륜을 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륜을 상상력으로 녹아내리지 않으면 결코 쓸 수 없는 시들이기에 이번 시집이 더 주목받는다.

작가마을 | 134쪽 | 10,000원 | 2018. 12.



높게 혹은 낮게 이채우 지음

시는 자아탐구에서 출발해, 자아 풀어쓰기와 타자(他者)와의 관계 맺기라 생각합니다. 하여 자아 되돌아보기와 성찰의 여유와 정서 등을 감성적으로 구축하여, 그런 공감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물상적 언어를 동원한 감각적 언어에 의존한 시들로, 의미 현상을 그대로 그려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가슴에 와 닿는 시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인으로 거듭 태어나고 싶습니다.

두손컴 | 140쪽 | 12,000원 | 2018. 09.



꿈속으로 가는 바람 윤주동 지음

윤주동 창작집 제8집 『꿈속으로 가는 바람』은 대부분 노랫말로 엮은 시들이다. 노랫말들은 감정과 감상적 정서에 의존한다. 노래를 불렀을 때의 호소력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하여 특성상 본격적인 시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시는 애초에 노래다. 순열과 조합, 울동과 운율, 연상과 암시와 같은 매우 다양한 것들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이다.

청옥문학사 | 170쪽 | 12,000원 | 2018. 12.



시한구절의 힘 이규식 지음

2018년 새해에 펴낸 이규식 교수의 시론집. 한국 현대시에서 찾아낸 충만한 힘과 긍정의 감성, 인간-시간-공간의 씨줄과 날줄로 직조한 따뜻한 서정 김소월에서 오년까지, 삶에서 피워 올린 앤솔로지 70선의 우리 시를 다시 읽는다.

포엠포엠 | 256쪽 | 13,000원 | 2018. 01.



참 나는 어디에 우탁 지음

사람들은 인생에서 탐욕과 분노, 슬픔과 불안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삶이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참모습, 참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탁 스님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세상은 넓고도 큰데 진정한 나를 찾는 일이 바로 해탈이라고 설파하며 참 나를 찾아 헤매던 십수년의 화두가 이순의 언덕에서 이 책에 다시금 정립되어 있다.

해암출판사 | 271쪽 | 18,000원 | 2018. 05.



식탁 위의 낙엽 김순여 지음

김순여의 시는 소재를 멀리에서 찾지 않는다. 주위의 환경을 시의 원초적인 감성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숨어있는 혼(Soul)을 찾는 것이다. 거기에 과거의 경험이 녹아있고 현재가 숨소리 하는 것이다. 평범하게 만나는 그 속에서 진의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더욱 친근한 심미적 감성을 느끼게 된다.

책피넬열린시 | 144쪽 | 10,000원 | 2018. 04.



다시 지리산을 간다 강영환 지음

강영환 시인이 펴낸 지리산 시집 『불무장등』, 『벽소령』, 『그리운 치밭목』, 『다시 지리산을 간다』는 각각의 지리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리산의 옹혼에 가닿기 위해 40여 년의 시간을 걸고 달려왔다. 산을 타는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한 산행 정보로서 『다시 지리산을 간다』는 지난 상처를 뒀고자 하는 지리산을 만날 수 있다.

책펴냄출판사 | 144쪽 | 10,000원 | 2018. 05.



바늘 끝 여정 변승 지음

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한 변승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변승 시인은 늦깎이로 등단한 시인으로 최근 들어 붓물처럼 터지는 시 쓰기에 몰입되어 있으며 이번 시집은 최근 2년여 동안 쓴 시들 중에서 선별하여 펴낸 시집이다. 사물에 대한 시선마다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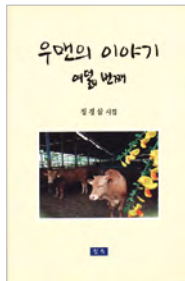
작가마을 | 126쪽 | 10,000원 | 2018. 05.



대효강산 양원식 지음

『대효강산』은 효산 양원식 선생의 시조집이다. 부산 해동고등학교에서 오랜 교편 생활을 했고, 1999년 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이 시집은 해동고등학교 42회 졸업생이 발간비 전액을 지원해 제작됐다. ‘대효강산(大曉江山)’이란 표제도 성파 큰스님이 축서로 서증하신 글이다. 이 시조집에는 ‘나무’ 외 216편의 주옥같은 시조들이 수록돼 있다.

해암출판사 | 127쪽 | 10,000원 | 2018. 10.



우만의 이야기 여덟번째 정경삼 지음

제1부 가끔은, 2부 나무관세음 보살, 3부 벗에게, 4부 사랑과 행복, 5부 아름다운 마음, 6부 우만의 소망 등을 엮은 시집. 축산업을 하면서 여덟 번째 시집을 내는 열정의 시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움을 위해 작은 돌 하나에도 사랑할 줄 아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쓴 시다.

청옥문학사 | 167쪽 | 10,000원 | 2018. 07.



동행과 순리의 미학 현형수 지음

존재론의 탐구적 미학과 생활보기. 현실성의 이유가 표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면모와 형평성과 과정과 결론을 재론하며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하는 삶의 요체를 대단원으로 회자한 이 시는, 생활 중심의 가치관을 은연중 투영해 보며 현존의 입지를 비교분석한 주지적 관념시이다. 주체와 이미지를 세분하면서도 정연한 위치에 놓이는 시들이 결속력을 가지는 특징성을 지니는 어쩌면 기교를 부리지 않는 원론적인 시어들이 주정적 시들로 재탄생되고 있어 일미를 더하고 있다.

두손컴 | 124쪽 | 12,000원 | 2018. 04.



침묵의 뒤 김화자 지음

김화자 시인의 시집 『침묵의 뒤』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망부가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은 병으로 6개월간 병상생활을 하게 된 남편과의 병상일기를 시로 썼다. 평생의 반려자를 곧 먼저 보내야 하는 고통과 평안한 병원생활을 담담히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작가마을 | 126쪽 | 10,000원 | 2018. 12.



대숲에 부는 바람 박근호 지음

박근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대숲에 부는 바람』은 75편의 서정시가 수록돼 있다. 1부에 ‘까치가 울어’ 외 25편, 2부에 ‘동행’ 외 23편, 3부에 ‘대숲에 부는 바람’ 외 24편의 시가 게재되어 있다. 박근호 시인은 2009년 늦깎이로 문단에 등단해 지금까지 시 창작에 남다른 노력을 과시하고 있다.

해담출판사 | 128쪽 | 10,000원 | 2018. 11.



나의 친구 나의 멘토 강재훈 지음

강재훈 시인의 첫 시집 『나의 친구 나의 멘토』는 인간 신비의 메커니즘을 시(詩)로 풀어내고 있다. 이것은 무의지적 세계를 불러들이는 기억을 다루면서도, 숨골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현실의 끈을 이으려는 시도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감정과 신체가 분리될 수 없는 그 결집의 지점에 막혔던 숨골을 틔우듯이, 인정스런 시집(詩集)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도서출판 전망 | 160쪽 | 10,000원 | 2018. 08.



시월 노을 노장현 지음

노장현 시인의 소재는 자연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자랐던 사람들은 자연 속에 들면 행복하기 그지없다. 이때 자연은 집과 같으며 고향과 같은 것으로 포근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그 부드러움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다.

책피넛열린시 | 144쪽 | 10,000원 | 2018. 11.



하양의 신비 선영자 지음

『하양의 신비』는 선영자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선영자 시인은 39년간의 교직생활을 해온 교사 시인이다. 은퇴 후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찾아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낯편마저 떠나간 상실감과 허망함을 시로 달래고 있다. 특히 색깔에 대한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어 시인의 색채감을 감지해볼 수 있다.

작가마을 | 152쪽 | 10,000원 | 2018. 05.



집으로 가는 길 박복남 지음

기다림은 그것이 향하는 대상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정서이다. 반면 그리움은 대상이 흐릿하거나 실재에서는 부재하여 어떤 막연함을 자아낸다. 그리움은 봄날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흐릿하지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정서이다. 그것은 우리 속 깊이 깃든 신비, 순수, 생명력, 맑은 영혼이 내뿜는 숨결이 아닐까?

두손컴 | 144쪽 | 10,000원 | 2018. 03.



붉은 색들 강영환 지음

강영환 시인의 '7줄 시'를 묶은 시집. 그는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로 '7줄'을 꼽았다. "시조의 형식은 3행시, 일본 하이쿠도 짧은 형식을 갖춰 하나의 장르로 분류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구성하려면 최소 7줄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책피넛열린시 | 128쪽 | 10,000원 | 2018. 12.



연분홍 아가서(雅歌書) 최원철 지음

최원철 시인의 『연분홍 아가서(雅歌書)』는 신앙의 깊은 향기를 풍어낸 아름다운 연시인 동시에 신앙시(信仰詩)이기도 하다. 그는 기독교 가문에서 기독교 정신과 사상으로 자라 학자로 시인으로 성공한 이 시대의 지성인이다.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후회 없는 눈동자로 삶을 뒤돌아보면서 슬로몬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발자취를 『연분홍 아가서』로 풀어내 자신의 숨겨졌던 내면의 세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두손컴 | 278쪽 | 15,000원 | 2018. 04.



장미 씨,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 최류빈 지음

최류빈의 시는 짧디짧다. 고통에 공평법으로 맞서서, 삶에 들어온 칼을 자신의 살로 바꾸려는 듯 굳건한 상징으로 광기와 고통을 감싸 안는다. 이번 시집에서 최류빈은 '시인됨'의 정체를 모색하고 시험하면서 개성적인 면모를 갖춰가는 모습을 인상 깊게 펼쳐냈다. 예술가의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탐구하고, 일상과 예술의 간극을 느끼며 예술가로서의 위치와 자세를 고민한다.

프렘프렘 | 156쪽 | 10,000원 | 2018. 05.



날아다니는 포옹 김원용 지음

김원용 시인의 세번째 시집으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독거를 견디며 쉴 새 없이 시 작품을 생산해 내는 힘은, 떨어져 있어도 많은 응원을 보내 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가져다주는 힘은 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 주며 매사에 긍정의 힘을 생성시킨다.

책퍼낸얼린시 | 144쪽 | 10,000원 | 2018. 11.



물소리를 듣는 이끼 김시은 지음

김시은 시인은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이번 시집 『물소리를 듣는 이끼』는 시인의 첫 시집. 원로시인 유병근 선생은 “김 시인의 시의 양상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깨달음과 처절하고도 끈질긴 시의 정신을 보여 준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시에 대한 시인의 시적태도가 진지하다는 뜻일 게다.

작가마을 | 84쪽 | 9,000원 | 2018. 12.



혼을 담은 시조향기 심애경 지음

제1부 보은의 당, 2부 고독, 3부 문학 도반, 4부 움직이는 조각, 5부 바느질, 6부 사랑 등을 엮어 만든 시조집. 꽃이 지는 순간까지 용솨음치는 심장을 남김없이 표출해내고 싶다는 시인은 시와 특히 시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부산청옥문학에 사무장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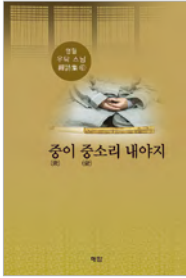
청옥문학사 | 173쪽 | 12,000원 | 2018. 06.



아름다운 인연 정연수 지음

4부로 구성된 『아름다운 인연』은 총 8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저자 정연수 시인은 마라토너로도 활약하고 또한 자전적 주제로 전국을 누비면서 쓴 체험적 시를 이 시집에 담았다. 특히 백두대간을 등정하며 쓴 ‘백두대간’이란 9편의 연작시가 눈길을 끈다.

해암출판사 | 164쪽 | 10,000원 | 2018. 03.



중이 중소리 내야지 우탁 지음

우탁 스님의 여섯 번째 선시집, 『중이 중소리 내야지』에는 86편의 선시와 58편의 한 줄짜리 시 58편, 총 144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이놈들! 중이 중소리 내야지, 노스님의 외마디에 중이 중소리라 과연 중소리는 뭇인고!”라는 화두를 안고 수행한 지도 벌써 40여 년. 스님께서서 ‘민음이 영혼이다’라고 풀어헤친 주옥같은 선시들이 보석같이 빛난다.

해암출판사 | 143쪽 | 10,000원 | 2018. 03.



꿀벌 펜션 김미순 지음

시집 『꿀벌 펜션』에서 시인은 기억이나 상처가 흘러는 심음을 한 데 모아 버무리거나 다독여서 큰 종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공중에 매달았다. 한 번이라도 종소리를 듣는 이는 시집 『꿀벌 펜션』의 주민이다. 그들은 황량한 들판에 나뉘는 빈 드럼통을 닮은 화자를 만나게 되고 텅 빈 드럼통 속을 날고 있는 작은 풀벌레의 울음을 듣게 된다.

시와사상사 | 137쪽 | 9,000원 | 2018. 10.



당신을 어떻게 어떻게 서안나 지음

이 시집은 서안나 시인의 유작시집이다. 2003년 《문예한국》 가을호에 등단한 서안나 시인이 2017년 11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4년간 병상에서 써왔던 원고들과 그동안 문학지 《계간진해》에 수록됐던 작품들을 모아 그의 남편이 발간했다. ‘사랑은 재가 되더라도 그대로 남는 것’이라는 시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남편들을 눈물 적시게 한다.

해암출판사 | 191쪽 | 15,000원 | 2018. 04.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가리라 최옥 지음

최옥 시인의 산티아고 순례시집. 시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고자 무작정 산티아고로 배낭여행을 떠난다. 37일간 800킬로를 걸어가며 기도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그 기록을 시로 육화시켜 시집을 펴냈다. 절절한 시인의 욕성을 시로 생생하게 들려준다.

작가마을 | 144쪽 | 10,000원 | 2018. 12.



완도의 詩 가락 이종철 지음

시인의 시를 읽다가 보면 그의 시가 발화하는 인간미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더 욕심을 내면 친구하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시인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인간의 삶은 황폐해지고 정신마저 메말라 가고 있는 터에 아직도 고향에서 애향십에 젖고 때 묻지 않는 순수 서정을 지키고 있다. 아름다운 시(詩)정신이 바탕되어 있는 그의 처녀시집 『완도의 詩 가락』은 그림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두손컴 | 148쪽 | 10,000원 | 2018. 09.



참 소중한 당신 허일만 지음

시인이자, 수필가인 허일만 선생의 유작문집이다. 허일만 선생은 기업인으로 부산에서 시와 수필을 주로 써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펴내지 못했다. 사후에 가족들이 선생의 시와 부산일보 등에 기고한 칼럼과 병상의 부인에게 쓴 일기 등을 모아 펴내게 되었다.

작가마을 | 160쪽 | 12,000원 | 2018. 05.



이별 보기와 희망 찾기 이채우 지음

극진한 부부애와 인간과 자연을 접목시킨 서정시편. 어느 순간 극명하게 예고도 없이 도출되는 행복과 불행이 어찌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처지의 원인과 편견을 실효성 있는 내용미와 주지로 환원시키고 있다. 못 잇을 사별한 그리움의 내자(內子)를 극명한 불행과 슬픔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을 추스르며 운명적 상황을 극복하는 안정미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건장한 시로 홀로서기를 하는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애잔하다.

도서출판 푸름사 | 122쪽 | 12,000원 | 2018. 05.



홀씨 하나가 세상을 치켜든다 김명옥 지음

김명옥 시인의 이번 시집 『홀씨 하나가 세상을 치켜든다』는 담백한 시인의 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집이다. 모든 사물에 대하여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 생명력을 또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재인식, 파고드는 상상력이 두드러진다. 김경복 문학평론가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시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작가마을 | 108쪽 | 9,000원 | 2018. 07.



자갈치 양원식 지음

시조문단의 원로인 양원식 시인은 오랜 교단 생활을 통해 후학을 양성했고, 부산해동고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갈치』 시조집에는 총 191편의 해양 관련 시조가 수록돼 있다. 특히 자갈치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삶의 편린들을 진솔하게 담은 수작들이다. 시조집 전체가 바다 관련 소재로 해양문학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해암출판사 | 139쪽 | 10,000원 | 2018. 10.



손의 온기 윤연리 지음

1992년 농민문학으로 등단한 윤연리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이번 시집 『손의 온기』는 시인이 세상에 가진 투명한 자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담백한 시선의 따뜻한 시편들과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한국크리스천시인협회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종교적 심미안도 함께 담고 있다.

작가마을 | 124쪽 | 12,000원 | 2018. 05.



별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손인환 지음

교단에서 40여 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문학 활동을 꾸준히 해온 손인환 시인이 이번에 출판한 『별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그동안 교단에서 틈틈이 써온 작품과 더불어 도예 시 26편을 포함해 총 94편의 시로 구성돼 있다. 평소에 ‘삶은 곧 승화된 시’라고 말하는 손인환 시인은 『별 그리고 나의 이야기』에 그의 삶과 내면의 세계를 소상히 엮고 있다.

해암출판사 | 143쪽 | 12,000원 | 2018. 10.



가을 꽃바람 변옥산 지음

작품을 통해 본 변옥산 작가는 객관적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고 있으면서도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리얼-로맨티스트(Real-romantist)다.

대상을 예사롭지 않게 직관(直觀)하되 따뜻한 눈빛으로 포용하는 이러한 경향은 인생사 오랜 경험의 연륜 덕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가 지닌 두터운 품성(稟性)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두손컴 | 310쪽 | 12,000원 | 2018. 07.



꽃이 춤을 출 때는 나경심 지음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낙엽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나는 지난 한 해를 꽃은커녕 여름의 푸르른 잎새도 잇은 채 다치기도 하면서 낙엽처럼 비실비실 나날을 보냈다. 작년 12월 친구들에게 내년에는 꼭 책을 내겠다고 큰소리친 게 죄말이 되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집을 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더욱 가슴이 답답하였다. 아직 많이 부족한 줄 알면서 책을 낸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본다.

두손컴 | 112쪽 | 10,000원 | 2018. 11.



시가 부르는 세상 손은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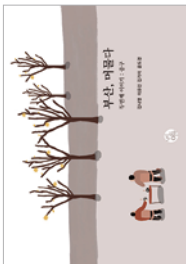
손은정 시인의 첫 시집 『시가 부르는 세상』은 교직을 정년퇴임 후 글쓰기를 시작,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흥미롭게 여기면서 작은 의미를 남다른 관점에서 서술했다. 『시가 부르는 세상』에는 120편의 시가 수록돼 있는데, 정년을 퇴임한 시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관점에서 삶이 응축된 순수한 본질들을 시로 표현했다.

해암출판사 | 142쪽 | 13,000원 | 2018. 12.

소설
및
에세이

Novels
&
Essays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



부산, 머물다 2 - 중구 김나령, 이유진, 김가이, 윤도경 지음

지역에서 보다 즐겁게 살기 위해 부산을 공부하며 여행 다니다, 잠시 또는 오래도록 머문 시선을 4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담은 책.

냥이의야옹 | 76쪽 | 8,000원 | 2018. 12.



XIV : 열넷 고소운, 김수연, 김수현, 최수인, 한에서 지음

열네 살 동갑내기 소녀들이 쓴 소설. 김수현, 최수인의 <marigold>, 고소운, 김수연, 한에서의 <꿈·夢> 두 작품이 함께 담겨 있다.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그들만의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다.

꿈공작소 | 150쪽 | 10,000원 | 2018. 12.



적도제 이상열 지음

작가는 소년 시절부터 바다를 동경하며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 바다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남다르다. 달려머니로 참치 떼가 세계의 바다를 회유한다.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그 바다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바다 사나이들의 거친 일상과 이국의 로맨스, 대양의 서정을 그려보고 싶다.

두손کم | 134쪽 | 15,000원 | 2018. 04.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지음

이상한나라의헌책방 주인장이 이반 일리치의 책을 읽고 자신의 삶과 책방 운영에 적용해본 흥미로운 실천기가 담겨 있다. 더불어 11년 동안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와 일본 헌책방 고수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256쪽 | 15,000원 | 2018. 06.



나는 고양이썸입니다. 김화수 지음

저자는 경남 통영에서 독립서점 '고양이썸 책방'을 운영하는 한편 독서지도사로서 독서 모임 '산, 책'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 모임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고양이썸 책방을 열고 학생들에게 독서를 교육하며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온 7년간의 시간을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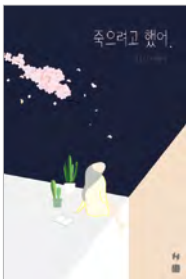
호밀밭 | 264쪽 | 13,800원 | 2018. 12.



싸락는 향기 날 때 새봄이 온다 신기용 지음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신기용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 신기용 작가는 문학평론집 6권, 동시집 2권, 시집 2권을 펴낸 바 있으나, 산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문집 『싸락는 향기 날 때 새봄이 온다』의 언어는 시어에 가깝다. 비유와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장은 운율을 갖추었고, 이미지가 선명하다. 소재와 제재는 꽃, 무지개, 싸락는, 바다 등 자연을 다루고 있다. 자연을 예찬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서출판 스토리팜 | 120쪽 | 13,000원 | 2018. 02.



죽으려고 했어 이소리 지음

이소리 작가의 『죽으려고 했어』는 작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생생한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하듯 들려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은 어쩔지, 지금 괜찮으냐고 말 걸어온다. 저자는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우울과 불안 사이에서 서성대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쩌면 죽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어'라고 수줍은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넨다.

호밀밭 | 192쪽 | 12,800원 | 2018. 12.



노을이 내게로 왔다 김도우 지음

시금치는 기우뚱한 발에서 떠다니는 달빛과 저녁노을에 물든 금빛 물결을 친구 삼아 추위를 견뎌낸다. 휘어지고 꼬부라진 땅에서 온몸으로 견뎌내는 시금치다. 겨우 사람 하나 지나다닐 만한 길을 내어놓은 언덕배기 다랭이 밭. 시금치가 허리를 펴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보면 어느덧 해가 스르르 꼬리를 내린다.

-「바람을 타다」 중에서

두손컴 | 224쪽 | 13,000원 | 2018. 02.



대금 소리 백승휘 지음

소설 『대금 소리』는 대금 소리를 모티브로 한 파르티잔(빨치산)의 이야기다. 빨치산을 소재로 한 소설은 주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이 소설은 지리산뿐 아니라 마지막 빨치산이 신불산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작가가 직접 신불산과 주변의 이야기를 찾아다닌 흔적이 역력히 드러난다. 등단하지 않은 작가가 이런 장편을 써 내려간 저력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요-You | 224쪽 | 13,000원 | 2018. 05.



방마다 문이 열리고 최시은 지음

최시은 작가의 첫 소설집.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본성을 들춘다. 작가는 가장장적인 남편, 폭력적이고 허영에 가득 찬 남성, 딸을 성폭력한 새 남편 등 뉴스에서 끔찍하게 보도되었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한다. 튼튼한 취재로 삶의 현장을 세심하게 그려내는 힘을 보여주면서 모순된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유지해 관심을 끈다.

산지니 | 236쪽 | 15,000원 | 2018. 11.



다 공부지요 백년어사 지음

이 책은 <이 시대의 공부법>이라는 주제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30명 필진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학습 시대, 모두가 배우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불신과 폭력에 갇혀 있다. 이 책에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공부의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나누고 있다.

도서출판 전망 | 360쪽 | 14,000원 | 2018. 11.



딸, 엄마도 자라고 있어 김정 지음

이 책의 저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1983년생 평범한 엄마다. 세상에 '경력직' 엄마란 없다. 세상 모든 엄마는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된다. 저자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두 개의 나를 만난다. '엄마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이 두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욕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깨닫는 사이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두두(호밀밭) | 256쪽 | 13,800원 | 2018. 10.



오래되어 좋은 것 배병채 지음

배병채 두 번째 수필집 『오래되어 좋은 것』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부터 아버지로서 느끼는 삶의 의미, 흐르는 세월의 덧없음까지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 수필집은 1부 일상 10편, 2부 사람 10편, 3부 그리움 10편, 4부 그리고 세월 11편, 총 41편의 수필을 수록하고 있다.

해담출판사 | 203쪽 | 13,000원 | 2018. 11.



종횡이 이야기 김영숙 지음

김영숙의 『종횡이 이야기』는 파란만장한 인생사 덕분에 단단한 굳은살이 박힌 그녀가 우연히 도서관의 자서전 강좌에 등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작품이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다, 달다, 시다, 맵다로 묘사하기도 한다. 특히 『종횡이 이야기』는 고감산신(苦甘酸辛) 인생을 경험하며 겪어오만 했던 인생 일대기를 쓴 자서전이다.

도서출판 전망 | 208쪽 | 12,000원 | 2018. 12.



거기서, 도란도란 이상섭 지음

소설가 이상섭의 픽션 소설집. 부산의 장소성을 '픽션'이라는 장르로 녹여냈다. 해운대, 사직종합운동장, 대저 적산가옥, 정과정 공원 등 부산의 역사가 깃든 몇몇 장소들은 작가가 그려낸 '허구'의 서사를 통해 16편의 이야기 속에서 재탄생했다.

*2018 이주홍문학상 선정도서

산지니 | 240쪽 | 14,000원 | 2018. 04.



무저갱 반시연 지음

희대의 살인마 노남용을 교도소로 다시 돌려놓으려 치밀하게 틈을 준비한 사내. 어느 특별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노남용을 죽여야만 하는 사내. 약물과 가스 491명을 안락사 시킨 선생님이라 불리는 사내. 노남용을 둘러싸고 세 개의 시점으로 벌어지는 강렬한 서사! 죄 지은 자가 제대로 된 형벌을 받지 않는 이 사회에 작가가 던지는 차갑고도 뜨거운 돌직구!

인디페이퍼 | 408쪽 | 13,000원 | 2018. 06.



엄마와 함께 고전영화 읽기 조수진 지음

좋은 영화 한 편은 인생과 비슷한 면이 많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진리까지 담겨있는 좋은 영화를 만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영화 한 편 그 이상의 의미를 선사한다.

호밀밭 | 196쪽 | 12,800원 | 2018. 12.



몽땅몰타(Montemps Malta) 임왕운, 장수빈 지음

프랑스어로 '나의 시간'을 뜻하는 'Mon temps'과 'Malta'를 합하여 만들어진 몽땅몰타. 몰타에서 보낸 나의 시간과 몰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가 당신의 몰타여행도 아름답길 바라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몽땅(Mon temps) | 257쪽 | 10,000원 | 2018. 06.



유린 이야기 유익서 외 지음

〈도요문학무크〉 14번째 책.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극복한 6명의 작가들이 '실종'을 테마로 펼쳐 보인 삶의 진경. 유익서, 조명숙, 정인, 허택, 김가경, 임성용 소설가가 테마를 두고 지상 좌담을 펼쳤으며, 김가경 작가의 〈유린 이야기〉는 현진건문학상을 수상했다.

도서출판 도요 | 205쪽 | 13,000원 | 2018. 08.



언더 더 씨 강동수 지음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등단 이후 『제국익문사』, 『검은 땅에 빛나는』 등 중량급 있는 장편을 선보이고 봉생문화상 문학상, 교산허균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강동수가 7년 만에 펴내는 단편집. 세월호 참사를 모티브로 집필한 표제작 '언더 더 씨'를 비롯해 모두 7편의 단편을 담았다.

호밀밭 | 304쪽 | 13,000원 | 2018. 09.



마니석, 고요한 울림 페마체덴 지음 / 김미현 옮김

티베트 출신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페마체덴의 단편 소설집으로, 표제작 「마니석, 고요한 울림」을 포함해 모두 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페마체덴은 티베트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주로 연출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영화를 찍으면서도 출판 소설을 썼고, 그의 영화는 대부분 자신이 쓴 소설에서 연유한 이야기들이다.

산지니 | 336쪽 | 15,000원 | 2018. 10.



맨땅에 헤딩하기 고금란 지음

부산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저자에게 시골 생활은 상상보다 힘들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고등골에서 유유자적 살고 있다. 시골생활을 하며 만나는 사람과 자연, 그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상을 글에 담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도시에서 받은 상처에 위로받길 바란다.

호밀밭 | 260쪽 | 13,800원 | 2018. 08.



지금, 이곳에 희망은 있는가? 남승우 지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작가가 근원에 대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한 생각을 교회, 대학, 지역문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비평가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고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인으로서의 생각이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 것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무엇을 건네줄 것이다.

도서출판 해성 | 232쪽 | 15,000원 | 2018. 01.



하선자들 이윤길 지음

『하선자들』의 한 축이 탈출의 욕망이라면 또 다른 축은 '바다'라는 원초적 힘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물의 삶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듯 바다를 선택했지만 바다는 그 선택을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그 힘은 때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2018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 도서

도서출판 전망 | 272쪽 | 14,000원 | 2018. 12.



내 옆에 있는 행복 하창완 지음

저자는 4년 전, 송국클럽하우스 회원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저자는 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글을 썼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 순진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저자가 책 읽기와 이야기, 글쓰기를 통해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동안의 기록들을 묶은 것이다.

호밀밭 | 272쪽 | 15,000원 | 2018. 11.



산골에서 혁명을 박호연 지음

서울서 나고 자라서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저자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아나키스트를 만났다. 자유로움을 갈망하던 그녀에게 초록 눈을 가진 아나키스트의 생활은 동경의 대상에서 한번 살아볼 만하겠다는 용기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떨걱, 무주 덕유산 골짜기 빈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280쪽 | 14,800원 | 2018. 02.



한숨인 줄 알았더니 꽃숨이더라 권갑점 지음

경남 함양 안의중학교 성인 문해반 선생님인 저자가, 한평생 배움에 목말랐던 어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익히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마당에 봉숭아꽃 한 포기 더 심는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그 지난 여정을 묶어 세상에 선보인다.

호밀밭 | 248쪽 | 13,800원 | 2018. 12.



주목처럼 천년을 황성창 지음

황성창 수필집은 훈훈한 인정과 그리움의 수필세계가 독자들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황성창 수필가는 인간적인 유대가 존재하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다. 『주목처럼 천년을』의 작품 중 '그리운 내 어머니'에서 저자는 사모의 정보다 더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현대인의 감성을 느끼게 한다. 이 수필집에는 기행수필 3편 외 33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해암출판사 | 211쪽 | 13,000원 | 2018. 10.



버킷리스트여행 신창선 지음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염불 위유듯 되씹는 말이 있다. 그것은 '짧게 써라, 그러면 읽을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그럼 그리듯이 써라, 그러면 기억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나저나, 내 작품 한 편에 소리 내어 읽고 싶은 문장이 하나만이라도 끼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요, 내 글의 비어 있는 행간에서 머뭇거리면서 은유하며 노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도서출판 전망 | 192쪽 | 13,000원 | 2018. 08.



핫볼(Hot ball) 이상열 지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과 싱가포르 연합군 포로의 갈등을 다루었다. 종전 무렵 미군의 해상봉쇄로 보급이 끊겨 포로들의 말라리아 치료가 속수무책인데 조선인 의사 이민수가 이열치열(以熱治熱) 처방을 착안한다. 매운 고추 환약 '핫 볼'로 수많은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여 영국 왕실로부터 조지십자훈장을 받게 된다. 본 소설은 전쟁이라는 인위적인 재난이 배태한 사랑과 아픔을 추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본성인 휴머니티가 주제다.

두손집 | 194쪽 | 15,000원 | 2018. 08.



그날이 올 때까지 김춘복 지음

원로작가 김춘복 에세이. 유년 시절부터 여든을 넘은 원로 작가로 자리매김한 지금까지의 58년 세월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소년기에 전쟁을 겪고 전후 혼란의 시기에 청년으로 지냈던 질곡 많은 개인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를 녹여낸 것이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252쪽 | 15,000원 | 2018. 10.



산타가 쉬는 집 이정임 지음

『산타가 쉬는 집』은 소설가 이정임이 등단 이후 10년 동안 여러 매체에 발표했던 산문들을 다시 주제별로 정성스레 묶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다듬으며, 주변의 시시콜콜한 일상에서 느끼는 단상부터 가족들을 바라보는 내밀한 감정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느꼈으며 무엇보다 써오며 살았음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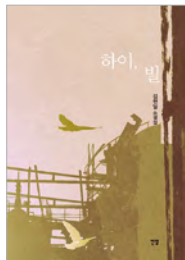
호밀밭 | 240쪽 | 13,800원 | 2018. 12.



가끔은 사소한 것이 더 아름답다 천성호 지음

작가 천성호가 수집한 일상의 풍경이 세밀하게 묘사된 산문집. 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것과 무심결에 흘려보낸 것들을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때로는 애정 어린 눈으로 재조명한다. '세상의 질서'에 너무 일찍 순응해 버리거나, 아예 궤도 밖으로 이탈하려는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이 책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부지런히 건져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삶'은 얼마든지 특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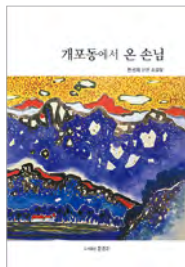
리딩소년 | 218쪽 | 13,800원 | 2018. 08.



하이, 빌 김현일 지음

작가는 현대를 위기 상황으로 파악한다. 최상위 단계의 태풍인 망쿳, 짜미 등이 서태평양 연안국을 휩쓸고 미국엔 플로렌스, 어마 등 5등급 허리케인이 수시로 불어 닥친다. 인간 사회는 어떤가?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자 김현일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재난과 위기에 찬 현실을 적시하고 해결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한다.

도서출판 전망 | 272쪽 | 14,000원 | 2018. 11.



개포동에서 온 손님 천성희 지음

첫 소설집을 낸 지, 근 1년여 만에 내는 소설집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첫 작품집에서는 남녀관계에 대한 사랑과 원망 그리고 배신과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번 소설집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생각하며 집필에 임했습니다. 현상과 상황들을 파악 수는 없지만, 이 작품집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장21 | 286쪽 | 12,000원 | 2018. 12.



이명원 가족의 28일간 유럽여행

이명원, 곽현미, 이명주, 이동주 지음

평범한 중년 가장 이명원이 준비한 28일간의 유럽여행 일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요 장소들을 다니며 느꼈던 가족애가 담긴 여행 경험담이다. 본인과 같은 중년남성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행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여행 준비와 여정, 여행지 정보, 여행 중 에피소드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장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경험담을 담았다.

빨간집 | 265쪽 | 15,000원 | 2018. 03.



블리비아 우표 강이라 지음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덟 편을 담은 소설집이다. 이 책을 통해 강이라 작가는, 생명이란 다른 생명에 빚지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거나 생명을 받아내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말이다.

산지니 | 256쪽 | 15,000원 | 2018. 12.



박물관을 읽다 신규범 지음

글쓰기를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첫 수필집 『박물관을 읽다』를 상재했다. 저자 신규범 수필가는 “서툰 솜씨로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이 담으려 욕심을 부리다 보니 형설수설한 것” 아닌가 싶어 부끄럽다고 겸손해 한다. 이 수필집에는 5부로 나누어 43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그는 현재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부산외대수필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담출판사 | 211쪽 | 13,000원 | 2018. 11.



풍경 너머 김민철 지음

김민철의 글에서 느끼는 큰 특징은 인문학적 감성의 풍부함이다. 공학 전공자들이 인문학적 감성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공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성적 사유는 일차적으로 공학 연구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민철의 경우는 본인의 전공에게는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적 감성을 수시로 가다듬어 왔음이, 그의 글 전반에 짙게 묻어나고 있다.

도서출판 전망 | 272쪽 | 14,000원 | 2018. 08.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지음

정영선 장편소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유일한 곳, 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온 사람들. 이 소설은 탈북자들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남한에서의 삶과 한국사회의 또 다른 어둠을 그려낸다. *2018년 요산문학상 수상작.

산지니 | 280쪽 | 14,800원 | 2018. 05.



오늘은 일진도 좋고 하라다마하 지음/김완윤 옮김

일본 드라마 〈오늘은 일진도 좋고〉 원작소설! 평범한 직장여성에서 세상을 바꾸는 스피치라이터로. 말의 울림을 깨닫는 감동의 스토리!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 출신인 작가 하라다 마하가 말의 힘과 아름다움을 소설에 담았다. 스피치라이터라는 독특한 소재와 드라마틱한 구성은 드라마 제작 및 45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디페이퍼 | 360쪽 | 15,000원 | 2018. 06.



삶이 도였다 박명균 지음

수필은 작가의 연륜을 해석하고 연륜은 과거를 성찰하게 한다. 문장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진실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박명균 수필가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삶이 곧 도(道)였음을 깨닫게 된다. 일거수일투족마다 도(道)를 닦는 기분으로 살아왔기에 오늘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이 수필집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하여 추천하는 바다.

두손컴 | 208쪽 | 12,000원 | 2018. 11.



바다의 끝 김부상 지음

김부상의 소설은 바다를 추상화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의 막연한 가능성에 기댄 낭만적 감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바다를 살아가는 인간의 비루한 욕망과 바다를 향한 속명적인 그리움을 씨줄 날줄로 엮어 묵묵히 그려낼 뿐이다. 그의 서사가 진한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은 바다 체험의 과잉이 낳은 현란한 수사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글쓰기의 정직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 도서

도서출판 전망 | 248쪽 | 13,000원 | 2018. 06.



유산 박정선 지음

친일파의 후손인 주인공(이함)이 가문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하면서 겪는 모순과 갈등을 그린 장편소설. 작품을 집필하게 된 동기에 대해 박정선 작가는 "날개가 작가적 소명을 채근했다."라고 말한다. 좌우 날개를 펼쳐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이데올로기의 잔재로 인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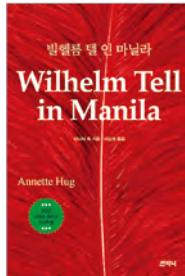
산지니 | 302쪽 | 15,000원 | 2018. 10.



머물고 싶은 순간 윤기선 지음

윤기선 수필가의 두 번째 수필집 『머물고 싶은 순간』은 저자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세상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헤친 수필이다. 어머니로서, 딸로서 참회하는 사모필(思慕筆)은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짝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총 6부로 구성된 이 수필집에는 48편의 보석 같은 수필들이 수록돼 있다.

해암출판사 | 208쪽 | 13,000원 | 2018. 08.



빌헬름 텔 인 마닐라 아네테 후크 지음/서요성 옮김

스위스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아네테 후크의 장편소설. 아네테 후크는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여성학과 개발학을 공부한 독일어권 문학의 떠오르는 소설가다. 『빌헬름 텔 인 마닐라』는 필리핀의 실존 인물이자 국가적 영웅으로 언급되는 호세 리살(Jose Rizal, 1861~1896)을 주인공으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오가며 풍부한 비유와 암시, 환상적 전개 등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산지니 | 264쪽 | 15,000원 | 2018. 09.



서해특정해역 이상열 지음

서해특정해역(북위 37°—30′ 동경 124°—00′)은 어자원의 보고이다. 하지만, 한 바다에 두 개의 국경선이 그어져 마음대로 넘나들며 고기를 잡을 수 없다. 1972년 12월 폭설이 내리는 날, 외두리 오양호가 소·대청 바다에서 흥어를 만선하여 인천 귀항 도중 피랍된 이 해역을 중심으로 베일에 가린 복讎의 실상과 이념 갈등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려 보고자 한다.

두손컴 | 192쪽 | 15,000원 | 2018. 04.



다독이는 시간 김나현 지음

김나현 수필가의 세 번째 수필집으로, 저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의 애환, 상처, 환희 등을 원숙하게 풀어냈다. 쉽게 꺼내기 힘든 개인사의 상처도 글로 단정하게 담았다. 따끔거리며 읽다가 지나온 삶을 다독거리는 작가의 공정에 힘이 난다.

산지니 | 222쪽 | 15,000원 | 2018. 08.



새벽길 차정연 지음

차정연 수필가는 2003년 《문학과 의식》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새벽길』은 두 번째 수필집이다. 이 수필집에는 숲속의 오두막집 8편, 풍요로운 가난 9편, 행복의 비결 9편, 새벽길 8편 등 총 34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해담출판사 | 127쪽 | 13,000원 | 2018. 12.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조혜원 지음

서른을 훌쩍 넘겨 서울 생활을 접고, 아무 연고도 없는 외딴 산골에 첫발을 디딘 용감한 여자가 있다. “잘한 선택일까, 과연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작은 텃밭과 골골이 이어진 산골짜기를 벗 삼아 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글 쓰는 알콩달콩 재미난 이야기를 담았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256쪽 | 15,000원 | 2018. 05.



네 얘기를 듣고 싶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음

문화다양성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사업단 ‘더불어총서’ 두 번째 책. 이 책의 청년 저자들은 기독교 사회나 기성세대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거나 왜곡해 놓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다문화 이야기를 담기 위해 내밀한 경험을 토해내거나 직접 취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호밀밭 | 136쪽 | 12,000원 | 2018. 02.



사라진 그림자(상, 하) 심유 지음

추리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정교한 구성! 숨 돌릴 틈 없는 추리무협의 진수! 절세고수 태허진인이 남긴 최고의 비급, 「무극진경」. 그러나 무림의 평안을 위해 비급의 행방에 대해 탐구하던 태허진인은 사대제자들에게 진경의 비밀이 담긴 네 개의 물건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그 일이 있고 십수 년이 지난 어느 날, 사대제자 중 두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사건은 시작되는데…….

인디페이퍼 | 408쪽, 388쪽 | 각권 11,000원 | 2018. 03.



당연한 게 어딴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음

『당연한 게 어딴어?』는 기성세대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거나 왜곡해 놓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이야기를 표현한 포드에세이집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응시하는 동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사유를 기록하고 모았다.

호밀밭 | 192쪽 | 13,800원 | 2018. 12.



삶, 꽃을 보듯 별을 보듯 정문숙 외 지음

『삶, 꽃을 보듯 별을 보듯』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생을 담았다. 한 분 한 분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기억하고 싶은 사람, 미처 전하지 못한 말, 잊지 못할 추억들, 억눌려 왔던 감정들을 글로 썼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속 소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인생의 명장면들이다. 힘든 삶이 아니었다 할 수 없지만 제목 그대로 ‘꽃을 보듯 별을 보듯’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진짜 어른들이 살아온 이야기이다.

도서출판 전망 | 192쪽 | 12,000원 | 2018. 12.



술을 만나고 싶다 강영환 지음

강영환 시인의 첫번째 산문집. 이 책은 도덕서가 아니다. 철학서도 아니다. 시인의 에스쁘리를 풀어놓은 명상록도 아니다. 술꾼의 음주 산행기이며 주정꾼의 패악질이다. 이 책에 저질러진 술한 만행들은 순전히 젊은 술꾼이 허투루 부린 객기일 뿐이다. 자유롭게 살고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피안의 세계에 훌쩍 달아보고 싶은 마음이 저질러낸 만행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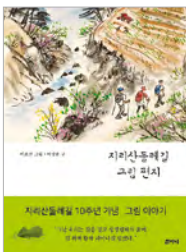
책피냄열린시 | 288쪽 | 15,000원 | 2018. 01.



내 고독의 무게 차달숙 지음

차달숙 수필가의 산문집 『내 고독의 무게』는 1부와 2부 수필, 3부 손바닥 소설, 4부 칼럼, 5부 시조 평설로 구성돼 있다. 최근 시조집 『두리기둥』을 출간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차달숙 작가는 그동안 시와 수필, 그리고 최근에 시조 장르까지 아우르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부산수필문인협회 부회장, 부산시조시인협회 부회장, 부산수영구문인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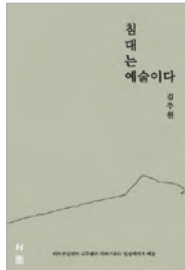
해암출판사 | 286쪽 | 13,000원 | 2018. 07.



지리산둘레길 그림 편지 이상윤 지음/이호신 그림

스물한 통의 수묵 편지에 담긴 지리산둘레길 21구간의 풍경 그리고 삶의 현장. 지리산 주변을 감싸며 만들어진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마을길, 계곡길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림으로 새기고 글로 쓴 이 책에는, 둘레길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그곳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 담겨 있다.

산지니 | 256쪽 | 20,000원 | 2018. 02.



침대는 예술이다 김주원 지음

이 책은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답을 일상에서 찾은 예술가들의 사회적 의식과 예술의 사회적 의미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프리다 칼로부터 안토니 고폴리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 예술가들의 예술적 삶과 그 창조물들이 지시하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이름다운 변화를 기대하고자 했다.

호밀밭 | 172쪽 | 13,800원 | 2018. 12.



시인의 공책 구모롱 지음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된 후 부산을 거점으로 문학평론가로 활동해온 구모롱의 에세이집. 인문적 사색과 통찰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문학, 철학, 사회, 장소, 부산' 등 다양한 주제의 글들은 에세이 형식을 지향하지만 그 이상의 깊이 있는 고뇌와 사유를 보여준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208쪽 | 13,000원 | 2018. 07.



찬란한 슬픔덩어리 박희선 지음

이미 6권의 수필집을 상재한 바 있는 박희선 수필가는 1988년 <시와 의식>에서 수필로 등단한 이래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수필문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수필선집 『수필, 찬란한 슬픔 덩어리』는 그동안 출판되었던 6권의 수필집에서 발췌해, 우육같은 36편의 대표수필을 수록함으로써 수필을 배우려는 후학들에게 좋은 수필 교본서가 되고 있다.

해암출판사 | 192쪽 | 13,000원 | 2018. 11.



나는 장성택입니다 정광모 지음

정광모 소설집. 표제작 「나는 장성택입니다」는 실존인물 '장성택'을 주인공으로 하여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한 인간의 삶과 행복에 대해 자문한다. '교도소'와 '외출'이라는 소재를 통해 관계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소설 「외출」, 애완동물의 모습을 몸에 새기는 주인공 이야기 「너의 자리」 등이 들어 있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산지니 | 224쪽 | 14,000원 | 2018. 05.



옛날, 한 옛날 한국바다문화학회 편저

바다에 대한 체험과 상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 어촌과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바다와 관련된 설화를 채집하고 이를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화는 점차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의 보존 작업이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발간되는 『옛날, 한 옛날』은 사라져가는 설화를 되살리고 보존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바다문화학회(두손겸) | 204쪽 | 10,000원 | 2018. 11.



손을 쓰다듬다 변순자 외 지음

드레문학동인지 에스프리 드레 제4호

어느새 네 돌이 된 에스프리 드레는 일상을 관찰하며 전진하는 참신한 작품을 쓰고자 하는 드레문학인의 열정이 스스로 돌보이는 모임이자, 작품으로 보다 빛나게 우뚝 서려는 드레문학인의 따뜻한 모임이다. 창의적이며 참신한 작품, 새롭게 나아가려는 문화정신을 이 책에 담았다.

도서출판 전망 | 248쪽 | 12,000원 | 2018. 09.

아
동
/ 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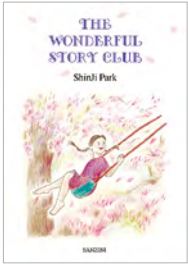


구쁘다 이야기 열 조각

곽수아, 김영호, 김진숙, 배익천, 최미선 지음 / 김중원, 김진영, 남서희, 추주희, 홍석진 그림

『구쁘다 이야기 열 조각』은 고성군청이 주도하고 고성 출신의 동화작가들과 부산의 삽화작가들이 함께 고성에서 전해지던 설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 동화집이다. 고성읍의 여러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와 설화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레 담은 이야기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호밀밭 | 244쪽 | 12,000원 | 2018. 10.



THE WONDERFUL STORY CLUB ShinJi Park 지음

열 살 소녀의 영어 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영국 런던으로 건너간 2000년~2002년에 작성한 영어 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됐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열 살.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런던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특히 꾸밈없는 순수한 필체와 생각들을 통해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산지니 | 150쪽 | 13,000원 | 2018. 02.



마법에 걸린 아이 서하원 지음 / 안기태 그림

교육을 주제로 한 현실과 과거를 넘나드는 장편동화. 주인공은 걱정을 사들이는 가게에 들러 현실의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팔아치우며 엄마의 과거와 미래의 로봇도시와 공룡의 세계 등을 탐험하는 동안 엄마와 자식 간의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스토리로 작품을 끌고 간다.

도서출판 해성 | 160쪽 | 12,000원 | 2018. 08.



왜 성당 다니세요 구용 지음 / 김수안 그림

신앙생활이란 얇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쉽게 풀어낸 신앙 시집이다.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왜 성당을 다니느냐’는 질문을 받은 시인은 성당을 다니며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인의 이야기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동심(童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들을 엮어냈다.

도서출판 해성 | 128쪽 | 12,000원 | 2018. 03.



해오리 바다의 비밀 조미형 지음 / 박경호 그림

바다 환경 문제를 다룬 창작동화로, 니오와 신지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소년 ‘니오’와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신지’를 비롯해 바다를 지키는 산갈치 ‘알라차’,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괴물이 된 가오리와 바다유령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통해 더러워진 바다 속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018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지역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산지니 | 136쪽 | 13,000원 | 2018. 12.



사거리 팬시점 구옥순 외 지음

가장 여물고 단단한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부산아동문학인협회 2018년 작품집. 동시 64편과 동화 39편을 실었다. 부산 원로 특집으로 박일 선생님의 동시 「해와 꽃」과 최향숙 선생님의 동시 「집 보는 햇살」이 실렸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알려주고 싶은 아동문학인들의 바람이 책 속 곳곳에 묻어나 있는 책보다도 온도가 높은 책이다.

도서출판 해성 | 416쪽 | 20,000원 | 2018. 12.



나는 강, 강은 나 이성아 지음 / 오치근 그림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편리한 생활만을 위한 개발이 시작되었지요. 보라매 시리즈 열 번째 작품 『나는 강, 강은 나』는 생태동화로, 지리산 용유담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배경으로 솔이와 은강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9 북토크 선정도서, *2019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산지니 | 104쪽 | 12,000원 | 2018. 08.



시골버스 구용 지음 / 김수안 그림

우리 고장의 특산물 이야기를 테마로 한 동시집. 값싼 외국 농수산물들이 들어와 국산 농수산물을 위협할 때도 있지만,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알고 찾는다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시골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촌맹이 딸기, 소용골 앵두 등 이름만으로도 정겨운 지역 특산물을 동시로 만나 고장의 우수성과 맛으로 느끼는 시를 먹어보자.

도서출판 해성 | 136쪽 | 12,000원 | 2018. 12.



엄마 사용 설명서 도린 크로닌 지음 / 로라 코넬 그림 / 강도희 옮김

설명서 형식으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재미있게 풀어낸 그림책.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를 관리하게 된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엄마 사용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엄마를 직접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의 건강이나 기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산지니 | 56쪽 | 16,800원 | 2018. 03.

인문
사회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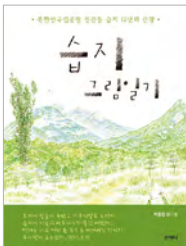
Humanity
&
Society
&
Nature



위안사물도 박선희 지음 / 그림

대량화된 사회에서 너무 싸고 너무 흔해서 생긴 오명 '시시한' 사물. 그러나 얻은 오명에 비해 그것이 환기시킨 가치는 너무나 크다. 시시한 줄로만 알았던 내 주변의 사물,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시시한 사물의 특별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보물 같은 이야기이다.

비온후 | 125쪽 | 16,000원 | 2018. 12.



습지 그림일기 박은경 지음 / 그림

박은경 습지 활동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진관동 습지를 보전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습지생태의 변화와 다양한 생물을 지켜이 담은 그림일기다. 책은 저자가 기록한 관찰일기를 정리해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습지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생물들의 모습을 담았다. *2018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도서.

산지니 | 175쪽 | 16,000원 | 2018. 06.



부마에서 촛불로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저

이 책은 부마항쟁 학술연구의 두 번째 성과로 2017년 심포지엄 결과인 10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부마에서 촛불로』라는 책의 제목이 지닌 의미는 부마항쟁이 더 이상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에 부마항쟁의 당대성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촛불혁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마항쟁의 정신은 촛불의 심지로 이어져 타오르고 있다.

소요-You | 320쪽 | 30,000원 | 2018. 10.



김정은의 음악정치 강동완 지음

모란봉악단을 보면 분명 김정은이 보인다! 김정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은 북한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날에는 어김없이 공연 무대에 오른다. '음악정치'라 표현할 만큼 모란봉악단의 위상은 대단하다. 북한판 걸그룹이라 불리며 우리 사회에서도 남다른 주목을 받는 모란봉악단은 공연마다 김정은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후속편으로 전면 14회차 공연에 이어서 2014년 3월 공연(15회차)부터 2017년 12월까지 개최된 전 공연(31회차)을 살펴본다.

너나드리 | 512쪽 | 25,000원 | 2018. 10.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지음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 부산의 다방』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다방문화의 기원과 뿌리를 추적한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 예술가 15인이 부산의 다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부산의 다방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슬하게 반복한 흔적과 그 속에서 펼쳐졌던 시대의 풍속도를 복원한다.

호밀밭 | 172쪽 | 12,000원 | 2018. 12.



부산의 디자인문화 '예술에 혼을 담다' 김다희, 최장락 지음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김봉진-
디자인·공예 교육의 산실인 1970년대 부산공예학교에 재직하셨던 작가님들 중에 우선적으로 중군화가로,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으며 부산 화단(畫壇)의 역사이며 산군인인 김봉진 원로 작가님의 일대기를 서술대담록으로 엮었다.

두손컴 | 88쪽 | 20,000원 | 2018. 06.



시민의제사전 2018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편저

『시민의제사전 2018』의 중심 주제는 “안전-물과 원전”이다. 2017년 9월 25일~10월 25일까지 한 달간 부산 시민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담았고, 시민들이 바라본 지역의 수돗물 정책과 건강권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들을 실었다.

소요-You | 152쪽 | 13,000원 | 2018. 01.



문심조룡(文心雕龍) 유협 지음/황선열 옮김

『문심조룡(文心雕龍)』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유협의 문학 이론서이다. 이 책은 중국 고대의 문학 작품을 섭렵해서 문학의 근본 원리와 문학의 갈래, 그리고 문학의 창작 원리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학이론서이다. 전체 구성을 마흔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동양의 우주관을 상징한다.

도서출판 신생 | 568쪽 | 30,000원 | 2018. 09.



'디자인-안전을 말하다' 최장락 지음

<부산국제디자인제 작품집>

산업이 발달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어 디자인 및 문화예술을 통하여 디자인 이미지 제안과 계몽활동으로 산업제해와 안전관리의 문화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두손컴 | 156쪽 | 20,000원 | 2018. 06.



독서, 그 풍요로운 생각의 숲 이종섭 지음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오랜 시간 국어교사로 활동하다 지금은 부산교육청 장학사로서 독서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저자가, 기존의 독서에 관한 고정관념을 뒤집으며 오늘날 책과 독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짚어준다.

호밀밭 | 232쪽 | 13,800원 | 2018. 10.



평양 밖 북조선 강동완 지음

999장의 사진에 담은 북쪽의 북한

999장의 사진에 담은 북중접경 2,000km 북쪽 사람들의 모습! 이 책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북중 접경에서 찍은 999장의 사진을 담았다. 평양 밖 북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평양과 지방으로 나뉜다. 평양에 사는 특별시민이 아니라 북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2018년 여름날, 뜨거웠지만 여전히 차가운 분단의 시간들을 기록했다.

너나드리 | 540쪽 | 35,000원 | 2018. 09.



로컬리티라는 환영 박형준 지음

지역에서 문학/비평을 한다는 것은 '중앙중심주의'라는 권위적 문화주의와 대결하는 민주적 투쟁인 동시에, 우리 안의 토착적 기득권을 내파(內波)하는 자기 혁명의 과정이기도 하다. 비평이란 불화를 통해 조화에 이르는 변증법적 실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로컬리티 locality라는 환영과 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이 책을 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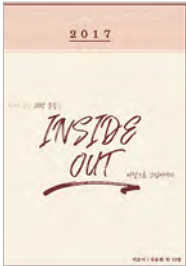
두두(호밀밭) | 260쪽 | 15,000원 | 2018. 12.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서광덕 지음

이 책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근대의 세계사적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근대 지식인들은 이 문제와 격투하며 자신의 사유를 버리는 과정에서 루쉰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시 조명한다. 나아가 바로 이 근대가 동아시아에서 시작될 때부터 문장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루쉰의 글을 다시 읽고 분석함으로써 그가 사유한 근대성의 문제를 파악해 본다.

산지니 | 376쪽 | 28,000원 | 2018. 06.



Inside Out 차윌화 외 15인 지음

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의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동아리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다른 과학동아리 활동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꿈공작소 | 450쪽 | 25,000원 | 2018. 01.



역습 우은진 외 지음

무크지 째4호

째(jab)은 부산작가회의 청년문학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크지다. 째 제6호 『역습』은 부조리한 사회 권력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역습’을 시도하는, 째지만 날카로운 째과 같은 시선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문학을 창작하고 또 사유하고자 만들었다.

도서출판 전망 | 272쪽 | 14,000원 | 2018. 12.



마음의 이해와 치유 정혜경 지음

『마음의 이해와 치유』는 저자의 실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영화와 소설을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론서이다. 본 서는 갖가지 스트레스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쉬운 현대인의 마음의 이해와 치유의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 비교적 쉽게 기여할 수 있는 교양서를 지향한다.

도서출판 전망 | 240쪽 | 14,000원 | 2018. 09.



도시는 정치다 윤일성 지음

도시 정치의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 재생과 문화를 살펴보는 도시사회학 책. 본서는 **故윤일성** 교수가 살아생전 ‘도시는 정치다’라는 책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목차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정리해 출간됐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펼쳤던 그의 논문(미발표 논문 포함)들을 엮었다.

산지니 | 420쪽 | 30,000원 | 2018. 12.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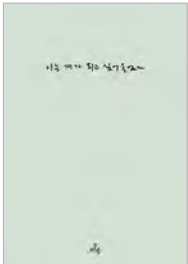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지음

한국 근대조성의 발상지 ‘강강이마을’. 3권 생활 편에서는 총 스물여섯 명의 필진이 참여하였다. 소설가, 다큐멘터리 감독, 영화평론가,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 각자 자신만의 시각으로 강강이마을을 관찰했고 마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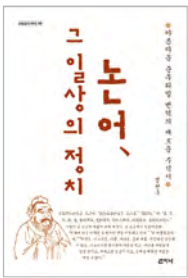
호밀밭 | 224쪽 | 10,000원 | 2018. 03.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 김세진 지음
 요시다 쇼인과 그의 학교 쇼카손주쿠에서 함께했던 학생들의 삶을 살피며, 일본과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지금보다 폭넓게 비춘다. 건강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진정한 지피지기와 독립을 이루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호밀밭 | 232쪽 | 15,000원 | 2018. 08.



나는 개가 되고 싶어 울었다 정경빈 지음/그림
 2016년부터 작가가 겪었던 일에 대한 드로잉 기록물들이다. 작가는 일상이나 몸, 혹은 예기치 않은 질병과의 조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해지지 않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난감함을, 몸과 질병 그리고 그림을 빌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기록들은 조금이나마, 가끔 개가 되고 싶은 이에게 위로가 된다.
 비온후 | 170쪽 | 15,000원 | 2018. 12.



논어, 그 일상의 정치 정천구 지음
 20편에 이르는 논어 전편을 순우리말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 한자 하나하나의 속뜻과 말뜻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구 해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행간의 숨은 뜻, '어쭙'을 통해 일상에서 정치를 행하려 했던 공자의 실천사상을 중심축으로 일관되게 해설하고 있다.
 산지니 | 640쪽 | 35,000원 | 2018. 04.



귀도 이탈 정경미 외 지음
 가변차선 5호
 시인들이 의식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를 쓸 수 있을까? 앙드레 브르통은 인간의 꿈과 무의식의 우발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비이성적 사고에 의해 촉발되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시 쓰기의 중요한 기법으로 보았다. 정경미, 김금아, 김미선, 신선, 이신정 이 다섯 시인에게서도 서양의 시인들과 닮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언어의 미술(美術)'을 보게 된다.
 도서출판 전망 | 160쪽 | 9,000원 | 2018. 09.



박재혁 안덕자 지음
 『박재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던지고 27세의 나이로 순국한 박재혁 지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지역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기록한 사료가 부족해 동화 형식을 취했다. 박 의사의 생애 중 의열단 가입부터 폭탄 투척, 순국까지의 과정은 비교적 근거 자료가 탄탄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썼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박 의사의 외손녀 등을 만나 인터뷰하며 허구의 이야기로 꾸몄다.
 호밀밭 | 168쪽 | 12,000원 | 2018. 12.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강동안, 고성준 지음
 국내 최초 통일여행 안내서 - 당신이 통일과 만나는 작은 여행. 분단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는데, 통일은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다. 이 책은 '통일이 놀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을 통일의 눈으로 다시 보자는 시도다. 일상의 통일, 통일의 일상을 살다 보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은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늘 통일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장소가 많아야 한다. 제주 역시 통일을 이야기하는 <통일과 평화의 섬>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제주를 찾는 분들에게 재미있는 통일여행길잡이가 될 것이다.
 너나드리 | 300쪽 | 21,000원 | 2018. 12.

책 짓는 사람들

지역출판워크숍 B-LAB 2기(강수인 외 23명) 지음

부산콘텐츠코리아랩(지역출판워크숍 B-Lab)을 통해 1인 출판과 책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협업해 만들었다. 출판사, 유통단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출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역의 출판사, 잡지 발행인, 서점, 인쇄소, 독자 모임 등 출판생태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 질문을 던졌다. 또 관련한 정보들을 기획물로 담았다.

발간집 | 193쪽 | 8,000원 | 2018. 03.



오토바이로 모기를 잡아라

자발적 참여와 개인미디어를 통한 확산으로 이어지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공캠페인의 세계.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캠페인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 화제의 공공캠페인을 사례별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디페이퍼 | 296쪽 | 15,000원 | 2018. 04.



선택

부산 지역 사회운동가 한정길의 삶과 그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교육 전반에 대해 진단한다. 시민운동이 20여 년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왔지만, 여전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다 논쟁 없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도 그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산지니 | 244쪽 | 15,000원 | 2018. 03.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이연도 지음

근대 이후 중국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상사회론 소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정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이상사회론의 역사적 흐름과 그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지니 | 320쪽 | 23,000원 | 2018. 06.



동화 속 세상 읽기

정혜경 지음

『동화 속 세상 읽기』는 비현실적인 동화 속 세상을 상상하는 경험을 통해 맑고 밝은 정신의 세계를 고양시키고, 삶의 간접적인 체험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책의 내용은 아시아와 유럽의 신화와 그로부터 시작된 민담이나 설화가 동화로 자리 잡은 과정과 영화화 된 동화, 유물과 설화를 바탕으로 상상하여 구성된 저자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출판 전망 | 256쪽 | 15,000원 | 2018. 10.



무위를 위하여

신지연 지음

회화와 설치, 글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작업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 관조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허구와 진실이 버무려져 있다. 작업을 하며 사는 삶과 태도, 시선 등이 수많은 형용사 부사, 은유와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다.

비온후 | 153쪽 | 10,000원 | 2018. 12.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지음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저자의 활동과 글을 정리한 책. 1980년대 부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부산여성회 회장을 역임한 박영미 대표는 2005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되어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적인 신망을 얻었다.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산지니 | 226쪽 | 15,000원 | 2018. 02.



못생긴 여자의 역사 클로딘느 사게르 지음 / 김미진 옮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해 온 문제는 수천 년의 시간에 걸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켜켜이 쌓여온 결과다. 그러므로 오래된 여성 혐오의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책 『못생긴 여자의 역사』는 여성의 외모를 둘러싼 혐오와 권력관계의 긴 역사를 추적한다.

호밀밭 | 364쪽 | 15,800원 | 2018. 06.



나는 말이 좋아서 일합니다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투쟁 백서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 투쟁 백서 발간위원회 지음

2017년 5월 27일과 8월 1일, 랫트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세상을 등졌다. 국내 최초 말마사지사인 고 박경근 씨와 성실했던 청년 고 이현준 씨의 죽음으로 마사회의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마필관리사의 처우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은 마필관리사들의 85일간 투쟁을 기록한 문서와 사진, 이미지들을 취합해 만든 아카이브 북이다.

빨간집 | 393쪽 | 18,000원 | 2018. 05.



부산 탐식 프로젝트 최원준 지음

47가지 음식으로 전하는 부산 이야기. 다양한 매체에 칼럼, 방송, 강좌 활동 등으로 음식인문학과 음식문화사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는 음식문화칼럼니스트로서 저자는 언제나 그랬듯 부산을 떠들며 여행이라도 하듯이 음식을 탐구(탐식探食)한다. 이 책에는 그렇게 탐구한 총 47가지 음식을 지역에 따라 '낙동강, 기장, 원도심, 골목' 총 4부로 엮었다.

산지니 | 288쪽 | 18,000원 | 2018. 11.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1 수요자포럼 지음

'수요'의 차원에서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남성 모임 <수요자 포럼>의 첫 번째 책. '내부자'인 남자의 눈으로 본 남성문화에 관한 열일곱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의 남성 필자들에게는 성매매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의 순간마다 성매매와 분리되지 않는 남성문화의 면면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룬살롱으로 향하던 회식 자리에서, 섹스 경험 여부로 남성성을 평가하는 남성 커뮤니티에서, 불편함은 느끼지만 포르노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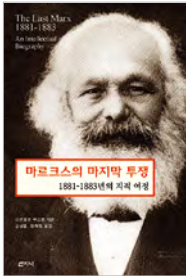
호랑이출판사 | 163쪽 | 12,000원 | 2018. 05.



서유기 81년 연구 서정희 지음 / 부산대중국소설연구회 옮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중국고전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동양 판타지의 효시로 알려진 『서유기』를 다룬 선구적인 논문이다. 전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서정희 교수는 중국고전을 중심으로 비평과 집필 활동에 매진했으며 30여 편의 서유기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본서에서는 서정희 교수의 독창적인 서유기 독해의 원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산지니 | 340쪽 | 20,000원 | 2018. 08.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마르셀로 무스토 지음 / 강성훈, 문혜림 옮김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노년기를 조명하기 위해 출간된 책. 마르크스 말년의 삶과 투쟁을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년에 작성했던 글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옹겔스,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어 마르크스의 생애 마지막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산지니 | 236쪽 | 20,000원 | 2018. 05.



근대연출론

클레이턴 해밀턴 외 지음 / 강수진 옮김
책은 근대의 연극과 연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클레이턴 해밀턴의 책 그리고 에머슨 테일러의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 것이다. 근대 연극의 특징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통한 설명을 풍부한 예와 함께 제공하고 있고 연극 제작과 연출에의 입문을 위한 기본적 지식들을 수록하고 있다.

책피넛열린시 | 160쪽 | 15,000원 | 2018. 10.



영화 열정

리처드 라우드 지음 / 임재철 옮김
시네마테크의 아버지 앙리 랑글루아의 생애와 그의 열정을 담았다. 192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그저 값싼 일회성 오락의 형태로 인지했다. 하지만 앙리 랑글루아에게 있어 영화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예술의 한 형태였다. 그리고 1935년, 그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를 설립한다. 랑글루아는 젊은 감독들에게 그야말로 '빛을 준' 인물이었다.

산지니 | 318쪽 | 22,000원 | 2018. 10.



엄마의 엄마

강동완 지음
중국 현지에서 만난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국내 최초 중국 현지 거주 탈북여성의 삶을 담다! 탈북여성 100명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책.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여성. 떠났다는 표현은 어쩌면 그녀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이다. 어미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운 엄마를 떠올리는 그들은 누군가의 딸이자 또 누군가의 엄마여야 했다. 엄마에게 가는 길은 가깝고도 멀기만 하다. 그래서 통일은 엄마다.

너나드리 | 450쪽 | 22,000원 | 2018. 05.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노용석 지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연구와 유해발굴 사업을 주도해온 저자 노용석 교수가 한국전쟁 전후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더불어 피학살자들의 유해발굴 과정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 책. 저자는 유해발굴의 과정을 현장에서 얻게 된 풍부한 사례와 자료에 이론을 더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순으로 정리했다.

산지니 | 320쪽 | 25,000원 | 2018. 07.



깨달음

김중의 지음
학문적 수행으로 갈고닦은 동양의 사유들을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변주해낸 책이다. 어지러운 세상을 건너갈 희망의 좌표로서 '하나(-)'의 가치를 내세운 유불도 선인들의 사상은 일상의 하루하루 속에서 과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쉽게 읽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산지니 | 304쪽 | 25,000원 | 2018. 05.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병훈 지음

동서 정치사상의 기원인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 이상적 국가와 정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책. 1부에서는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소개하며 그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2부에서는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다룬 평전을 통해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한다.

산지니 | 354쪽 | 25,000원 | 2018. 03.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의 독서안내

다치바나 아키라 지음 / 이진아 옮김

기술과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1970년대쯤부터 거대한 지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복잡계, 진화 심리학, 게임 이론, 뇌과학 등의 새로운 지식 분야가 지금까지의 상식을 차례차례로 부수고 있다. '지식의 빅뱅' 이후 폭발적인 진보를 가져온 복잡계, 진화론, 게임이론, 뇌과학, 공리주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온 지식의 최전선을 탐색해보자!

인디페이퍼 | 332쪽 | 15,000원 | 2018. 01.



백신에 문학의 안과 박 서영인 외 지음

여성작가 백신애(1908~1939)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모은 논문집. 1부에서는 백신애를 모델로 한 이시카와 다쓰조와 장혁주의 소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백신애의 생애와 관련한 자료를 보강했고, 2부에서는 문학사와 젠더라는 맥락 속에서 백신애 문학을 재해석하고 여성작가로서의 백신애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3부에는 지역문학, 세계문학이라는 지평에서 백신애 문학의 가치를 연구한 논문을 수록했다

도서출판 전망 | 312쪽 | 15,000원 | 2018. 11.



고운 최치원 최정운 지음

이 책은 천 년 전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고운(孤雲) 최치원의 당나라 유학 과정과 귀국 후에 펼친 여러 활약상을 고증한 글이다. 특히 고운 후손들이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고운의 문묘배향(文廟配享) 배경에 관해서도 그의 학문과 연계해서 기술했다.

해암출판사 | 211쪽 | 20,000원 | 2018. 07.



중국경제법의 이해 김중우 지음

이 책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 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산지니 | 554쪽 | 35,000원 | 2018. 06.



세상 속 복음의 향기 강문구 지음

오랫동안 인본주의와 인간해방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학을 연구해온 저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찰한 이 책은 앞서 펴낸 저자의 성경공부 이야기 『성경동행-구약편』과 『성경동행-신약편』에 이은 3부작 마지막 결과물이다.

호밀밭 | 216쪽 | 14,000원 | 2018. 05.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외지음 / 김효전 옮김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8년 우수학술도서 선정도서.

산지니 | 1184쪽 | 80,000원 | 2018. 04.



흰모래, 일곱빛 실험이야기 김성아외 21인 지음

고등학생들이 창작실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창작한 실험과 기존의 창작실험을 연구하고 일반화하여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다양한 과학실험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참과학 | 344쪽 | 15,000원 | 2018. 11.



작은 공간 큰 이야기 7 문화매개 공간쌈지음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사 내에 위치한 문화매개공간 쌈은 부산 교통공사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사업단 Biki가 운영하는 재미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쌈수다'라는 재미나고 독특한 시간이 펼쳐지는데 부산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해 온 3040세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로 초대된다.

호밀밭 | 200쪽 | 10,000원 | 2018. 02.



세상에 나를 추천하라 정광위 지음 / 박규환, 한철민 옮김

중화권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으로 불리는 정광위. 그는 자신을 어필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능한 작가이자 사회자다. 대만과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각종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기획서를 돌리기도 했다. 이 책은 4개 국어를 독학한 저자의 공부법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함께 녹여 원하는 꿈을 이루는 자신의 방법을 전한다.

산지니 | 224쪽 | 15,000원 | 2018. 11.



영화장화

하스미 시게히코, 구로사와 기요시, 아오야마 신지 지음 / 조정민 옮김

일본 영화계를 견인하는 스승과 두 제자의 대화를 담은 책이다. 제목 그대로 영화에 대한 긴 이야기이다. 그러나 긴 이야기라고 이 책은 독자에게 지루함을 주지는 않는다. 이 책은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우리의 무릎을 치게 만드는 재기 발랄함이 대화 중간에 숨어 있다. 아오야마 신지는 이것을 "경쾌하고도 스피디하게 흐르는 마치 가슴을 파고드는 활극"이라 기록한다.

책읽는저녁 | 296쪽 | 18,000원 | 2018. 04.



인도불교의 역사 다케무라 마키오 지음 / 도웅스님, 권서용 옮김

부처님의 생애부터 입멸 후 부파불교의 전개, 대승불교의 출현, 공의 논리, 유식의 체계 등 인도불교 사상사를 정리해 불교의 출현과 교리, 분파의 전개를 상세히 설명한 책. 아시아 불교의 근원인 인도불교 사상의 발전과 전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에 유입된 대승불교의 출현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지니 | 288쪽 | 20,000원 | 2018. 08.

대학, 정치를 배우다 정천구 지음

성리학자들이 『예기』의 한 편에서 독립시켜 경전의 반열에 올린 『대학』은 1700여 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고전이다. 『논어, 그 일상의 정치』, 『맹자, 시대를 찌르다』, 『중용, 어울림의 길』을 번역한 바 있는 고전학자 정천구 박사는 중국의 역사서에 담긴 풍부한 예를 끌어와서 독자들에게 『대학』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지니 | 420쪽 | 30,000원 | 2018. 05.



플리아모리 후카미 기쿠에 지음 / 박규환, 진효아 옮김

플리아모리의 개념과 실제로 플리아모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소개한 책. 쉽고 정확하게 다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리아모리 입문서'이다. 일본의 사회인류학 전공자 후카미 기쿠에가 미국에서 만난 플리아모리스트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생한 현장조사 에세이를 통해 플리아모리의 실체로 다가간다.

해피북미디어 | 236쪽 | 15,000원 | 2018. 03.



사주팔자 나의 바코드 서암 지음

본 서적은 명리학을 처음 접하는 분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명리학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풀이했다. 인간의 운명은 음양오행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비 올 것을 알고 우산을 준비하면 낭패를 면하듯 자기 분수에 맞게 대처하는 요령이 이 책에 기술되어 있다. 별첨으로 사주학 용어 100선과 성명학의 기본 개요가 수록돼 있다.

해암출판사 | 271쪽 | 20,000원 | 2018. 05.



2°C 김옥현 지음

모호하고 느슨했던 기후변화 대응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책. 이 책은 지구 평균기온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왜 2도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2도 목표가 가지는 의미와 2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차원적인 제약 요인을 상세히 설명한다.

산지니 | 270쪽 | 20,000원 | 201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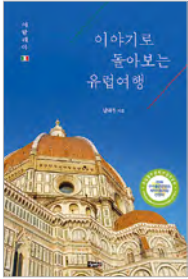


이
미
스

/

Practical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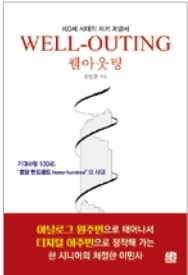


이야기로 돌아보는 유럽여행 남태우 지음

여러 번의 이탈리아 취재와 여행기를 토대로 한 여행역사책이다. 이탈리아의 전설, 설화, 역사를 바탕으로 여행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사진과 함께 엮어 누구나 쉽게 읽고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8년 한국출판진흥원 우수콘텐츠 선정도서.

도서출판 해성 | 304쪽 | 20,000원 | 2018. 10.



웰아웃팅 김일철 지음

웰빙의 관점에서 삶을 돌아보고 웰다잉을 위한 점검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 프리미엄 에이징을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파온 우물(웰)에서 벗어나야만(아웃팅) 한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프리미엄으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지 치열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할 때다.

호밀밭 | 212쪽 | 15,000원 | 2018. 02.



세계지도(행정) 편집부

한글과 영문이 같이 표기된 <세계지도>이다. 1:40,000,000의 지도로 4x6 사이즈(1050mmX750mm)의 전지 1매에 담은 유럽, 미국, 아시아, 아메리카의 정치구분도이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색상(정치구분)으로 표시하여 쉽고 빠르게 국가를 구분할 수 있다. 지도 내 별도로 유럽을 1:14,100,000으로, 미국을 1:18,300,000으로 확대 수록하여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출판 스토리팜 | 1쪽 | 7,000원 | 2018. 04.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제작론 김정희 지음

이 책은 배리어프리 영상 제작을 꾸리는 전문가(작가, 연출, 성우 등)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제작론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배리어프리 개념과 영상의 접목, 국내외 배리어프리 제작현황을 제시하고, 화면해설 제작과 자막해설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산지니 | 232쪽 | 20,000원 | 2018. 08.



중국 일주 배낭여행 강중우 지음

지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5회에 걸쳐서 중국 일주 배낭여행을 하면서 중국의 자연과 문화와 주민들의 생활을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한 책. 중국의 지리와 문화, 풍물 및 주민들의 생활을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으로 배낭여행이나 패키지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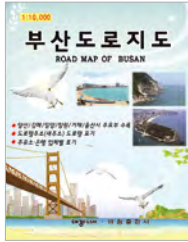
육일문화사 | 400쪽 | 20,000원 | 2018. 07.



백신 안전 플랜 폴 토마스, 제니퍼 마르쿨리스 지음

백신은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많은 백신을 맞을 경우 자폐증,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양한 장애를 앓게 된다. 소아과 의사 폴 토마스는 백신접종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조정하고, 이득보다 부작용이 큰 백신은 회피하여서, 이득은 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백신 접종방식을 제안한다. 이것을 백신안전플랜이라고 한다. 백신안전플랜을 따르는 폴 토마스의 소아환자들에게는 자폐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림출판사(서른세개의 계단) | 417쪽 | 16,500원 | 2018. 11.



부산도로지도(책자) 편집부 지음

부산광역시를 1:10,000의 축척으로 상세히 제작된 도로지도 책자이다. 주요 관공서 및 행정기관이 표기되었으며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거제시, 울산광역시 주요부가 표기되었다. 전국고속도로와 부산갈맷길도 수록하였다.

해광출판사 | 189쪽 | 28,000원 | 2018. 01.

기
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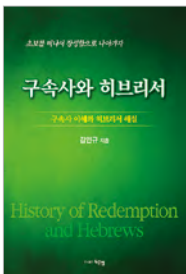
Other



현대소설 꼼꼼히 감상하기 이승준 지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소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소설 30편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을 '나'의 언어로 해석, 정리하는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꿈공작소 | 80쪽 | 6,000원 | 2018. 01.



구속사와 히브리서 김인규 지음

초보를 떠나서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본서의 대상 독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이고, 집필 목적은 본서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는 교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필자 또한 신학 비전공자로서 상기 내용들을 가급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두손컴 | 580쪽 | 20,000원 | 2018. 02.



관계사주학 최덕영 지음

『입체로 본 관계사주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현대의 상황에 맞추어 사주명리학 제 이론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평면으로 된 사주팔자의 구성을 입체적인 사람의 삶으로 대입한다. 또 지속적으로 간섭하는 환경과 조건, 타인과의 관계성을 읽어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론 체계를 기술한 현대 역학의 저술이다.

해암출판사 | 190쪽 | 32,000원 | 2018. 02.



일신설계 40년, 40개의 대표작 이용흠 지음

1977년 창립하여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건축설계사무소로 알려진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설계한 1,000여 개 작품 중 40개의 대표작을 선정하여 소개한 건축작품집이다. 일신설계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의 사진, 도면, 설계에 얽힌 이야기와 이에 대한 비평이 담겨 있다.

비온후 | 334쪽 | 40,000원 | 2018. 03.



불가능한 대화들 오늘의문예비평 지음

네 번째 이야기

『불가능한 대화들-네 번째 이야기』는 비평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 2017년 봄호부터 2018년 겨울호까지 만났던 작가들과의 기억과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다. 평론가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 애쓰고, 작가는 쉽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대담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화'이다. 이 딱딱한 언어들, 오고 감, 작가와 평론가 사이의 경직된 이 분위기를 치열한 문장들로 엮어 네 번째 『불가능한 대화들』을 세상에 선보인다.

호밀밭 | 268쪽 | 15,000원 | 2018. 12.



아침을 깨우는 소리 헤락스님 지음

미국 보스턴 문수사에 계신 스님이 매일 새벽 밴드에 올린 명상의 글을 모은 책이다. 명상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명상을 접하고 있는데 멀리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한 글들로 불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육일문화사 | 312쪽 | 12,000원 | 2018. 10.

부산지역 출판사

출판사 안내(가나다순) ... 098

출판사별 2018 신간도서 리스트 ... 104

부산문화재단

출간도서 안내 ... 110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소개 ... 111

꿈공작소
윤라현 대표
T. 010-2595-7980
E. rhyn77@daum.net
A. 부산시 사하구 윤공단로56번길 15

꿈공작소는 '책으로 이루는 나의 꿈'이라는 모토를 가진 부산의 1인 출판사다. 일반인들이 넘기 어려운 출판사의 문턱을 낮추어 나의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누구나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낭이의아옹
김나영 대표
T. 010-6409-2040
E. nyaong2040@naver.com
A. 부산시 중구 동광길 42 예선빌딩 801호 <부산머물다>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소리로 이야기하듯 사람은 사람다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제대로 나를 표현하는 세상을 꿈꾸는 낭이의아옹 출판사입니다. 부산지역의 이야기와 부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하는 독립출판사입니다.

너나드리
강동완 대표
T. 051-200-8790
010-6329-6392
E. simple1@hanmail.net
A.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81길 101-1406호

도서출판 너나드리는 통일 북한 분야 1인 출판사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너나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북한 분야 책을 통해 하나의 길을 만들어간다. 우리의 일상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 교양서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수익금은 관련 도서 연구 출판 및 통일기금으로 활용한다.

도서출판 두손کم
최장락 대표
T. 051-805-8002
E. doosoncomm@daum.net
A.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35, 301 (부전동, 삼성빌딩)

1997년 12월에 출판등록한 도서출판 두손کم은 전문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획출판을 하고 있다. 문학 작품 및 전문미술작품은 물론 예제 이와 월간, 계간, 잡지 등을 출판하고 있다.

소요-You
박윤희 대표
T. 070-7716-9249
010-2595-9249
E. pyh5619@naver.com
A. 부산시 중구 대청로137번길 11, 한양빌딩 402호

소요-You는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노닐다'라는 장자의 '逍遙遊'로 인간이 유희할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꿈꾼다. 그래서 많은 책을 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책을 내고자 한다. 1인 출판사이며, 직접 기획에서 디자인, 편집, 인쇄 진행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공존이라는 모험』으로, 2016년에는 『시민의제사전 2016』으로, 2017년에는 『마개 없는 것의, 비가 오다』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출판 우수도서 지원사업'에 세 번 선정되었다.

도서출판 스토리팜
조준형 대표
T. 051-253-0001
010-3782-5556
E. mwdangbook@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해관로41-1

도서출판 스토리팜은 문학도서 출간 출판사로 시, 에세이, 소설 등 문학 교양도서와 부산의 문화,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도서를 계획 중이다.

도서출판 신생
원양희 대표
T. 051-466-2006
010-4211-6201
E. lapori01@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5번길 5(401호)

2003년도에 설립된 도서출판 전망의 자매출판사이다. 시인과 문학평론가들로 이루어진 시전문계간지 <신생> 편집위원들의 기획으로 신생시선, 신생비평선, 신생인문총서, 신생학술총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도서출판 전망
서정원 대표
T. 051-466-2006
E. w441@chol.com
A. 부산시 중구 해관로 55(중앙동 3가)

1992년 설립되었으며 시집, 소설집, 수필집, 문학비평서 등 문학 중심의 서적을 출간해왔다. 문학서적 이외에도 사회과학을 비롯한 학술서적, 사진집, 번역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전문계간지 <신생>을 발간하여 지역문학과 문화의 텃밭을 가꾸어 왔다.

도서출판 도요
조명숙 대표
T. 010-2357-5244
E. doyo2009@hanmail.net
A. 부산시 기장군 이천6길 2

2009년 부산시 거제동에서 시작한 도서출판 도요는 문학과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도요상상총서, 도요예술총서 등 총 39종의 책을 발간하였다. 또 주변부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도요문학무크>를 14호까지 발간하여 지역문학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도서출판 청옥문학사
최경식 대표
T. 051-517-6068
010-3831-0062
E. sik620@hanmail.net
A.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03-6, (금강빌딩B2층)

청옥문학사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출판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부산에서 시작된 출판사다. 문학단체13년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좋은 책을 만들려고 시작되어 시집 문예지, 수필집을 중앙도서관, 교보문고, 알라딘, 전국대형& 도매서점에 납본납품하고 있다.

도서출판 푸름사
최장락 대표
T. 051-805-8043
E. doosoncomm@daum.net
A.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35, 302 (부전동, 삼성빌딩)

2009년 5월에 출판등록한 도서출판 푸름사는 전문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 작품, 에세이, 계간 등을 출판하고 있다.

도서출판 해성
김성배 대표
T. 051-465-1329
010-3835-1327
E. book0485@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7번길 7-1, 3층

도서출판 해성은 1989년 설립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부산의 토박이 출판사다. 지역 문인과 부산학 관련 책을 꾸준히 발간하며 부산 출판의 텃밭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약 500여 종의 책을 발간하였다. 우수도서와 우수콘텐츠를 선보이는 '해성'은 '부산'적이면서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책을 꾸준히 발간하는데 힘쓰고 있다.

도서출판 호밀밭

장현정 대표

T. 070-7701-4675
010-8530-4675
E. homilbooks@naver.com
A.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4번길 24 지하 1층 <생각하는 바다>

도서출판 호밀밭은 2008년 설립되어 올해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호밀밭은 누구나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텍스트를 매개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인간과 사회, 지역과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것에 감탄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문, 예술,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110여 종 출판하였으며 시대와 소통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독자들과 유쾌한 소통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딩소년

천성호 대표

T. 010-4747-1724
E. mora0012@gmail.com
A.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995번길 17, 202호

오랫동안 복리뷰어로 활동해온 대표(작가)의 넉넉함을 그대로 반영한 1인 출판사.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전국을 오가며 책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는 자신의 글만을 출판하고 있으며, 출간 장르는 모두 에세이이다.

몽땅(Mon temps)

장수빈 대표

T. 010-7703-5501
E. montempsmalta@gmail.com
A.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90 복음A. 507호

몽땅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은 보석 같은 나라와 장소, 사물의 본질과 매력을 소개하는 1인출판사다.

문장21

최철훈 대표

T. 051-646-0009
010-7746-6661
E. mun21-1@hanmail.net
A. 부산시 남구 고동골로 60번길 31-10

문장21 출판사는 부산에서 시작된 1인 출판사이다. 전 장르에 걸친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다.

비온후

김철진 대표

T. 051-645-4115
E. beonwhobook@naver.com
A.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63번길 16
W. www.beonwhobook.com

2000년부터 미술, 문화, 인문분야의 출판을 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잡지 <비클리프>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출판사에서 책방, 커뮤니티 공간, 두 곳의 전시 공간 <스페이스클리프>과 <보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책방을 그 열개의 시작점에 두고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펼쳐보고자 한다.

빨간집

배은희 대표

T. 070-7309-1947
E. rhousebooks@gmail.com
A.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NH정관7단지 701동 809호

빨간집은 2015년 11월에 설립했다. 사람, 문화, 예술, 장소, 지역을 기록하고 출판하는 1인 출판사이다. 사진작가, 예술가, 연구자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기록한 작업들을 현재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산지니

강수결 대표

T. 051-504-7070
010-3595-7070
E. skk7792@naver.com
A.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클러스터 613호

오래된 매를 뜻하는 산지니처럼, 오래 버티며 지속가능한 출판을 꿈꾸는 출판사.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판환경 속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바람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400여 종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지역 출판사로서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서른세개의 계단

이상민 대표

T. 070-7538-0929
010-7424-0035
E. pathtolight@naver.com
A. 부산시 범천구 한라시그마 1220호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계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서른세개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와사상사

김경수 대표

T. 051-512-4142
010-3872-2159
E. goldkiss@unitel.co.kr
A.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91 경동빌딩 2층

시와사상사는 2005년 7월 18일에 출판사를 신고하였다. 엄선된 유능한 시인들의 시집, 사회집 발간과 평론가들의 문학기론서와 함께 수필가들의 수필집 등 문학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출판사이다. 특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시전문계간지 『시와사상』의 발간을 통해 한국 시문학 발전과 부산 지역 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일문화사

이종형 대표

T. 051-441-5164
010-9335-2896
E. book61@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북병산길6번길 11

1989년도 설립된 육일문화사는 시집, 수필집, 소설집, 동인지, 회고록, 기념문집, 논설집 등 다양한 방면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인디페이퍼

최종인 대표

T. 070-8106-0506
010-2308-1530
E. indiepaper@naver.com
A. 부산시 남구 수영로 312, 21세기센츄리빌딩 1604호

인디페이퍼는 2015년 부산에서 시작된 출판사다. 지역출판사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SF 등 장르소설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 콘텐츠와 관련된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특히 첫 출간작 『시간 망명자』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북투필름 선정작으로, 한국 장편SF로는 처음으로 중국에도 수출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도서출판 작가마을

배재도 대표

T. 051-248-4145
010-8543-3884
E. seepoet@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대청로141번길 15-1
대륙빌딩 301호

도서출판 작가마을은 지난 30여 년의 출판경험을 살려 지역출판의 한계를 극복, 부산에서도 당당히 기획출판을 해보고자 지난 2002년 8월 출범했다. 그 일환으로 처음부터 서울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일산에 물류창고를 대여하는 등 서울지역과 다름없는 영업체계를 구축, 부산에서도 당당하게 기획출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과학

성종규 대표

T. 051-581-0213
010-2595-7980
E. dall5724@naver.com
A.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85

참과학은 전직 과학교사 출신의 대표가 만든 부산의 출판사이다. 과학과 관련된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용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특히, 현장 선생님들의 좋은 콘텐츠를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와 함께 과학과 관련된 외국의 좋은 서적도 번역 출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책임은저녁

김남영 대표

T. 051-293-1247
E. evening_reading@naver.com
A. 부산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294,
202호 (동조티파니빌라트)

책임은저녁 출판사는 2016년 1월에 1인 출판사로 시작했다. 제명에서 알 수 있듯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 그들의 내밀한 교양을 위해 존재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책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사상적 궤적들이 분투하고 갈등하는 현장을 담아낼 수 있는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책퍼냄열린시

최명자 대표

T. 051-464-8716
010-4212-3648
E. myung5463@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동광길 11, 203호

책퍼냄열린시는 1991년 출판 등록한 부산의 1인 출판사다. 시집, 연극 관련 학술서, 희곡집을 출판하는 곳으로 문학 관련 도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시 전문 잡지 <월간 열린시>를 창간하여 3년간 전국에 배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시인들을 위한 개인시집을 발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슴에 내리는 시>라는 시리즈 명으로 발간되고 있는 시집은 현재 81번째에 이르고 있다.

포엠포엠

한창욱, 배성국 대표

T. 010-4563-0347
010-5843-3737
E. poempoem@hanmail.net
A.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7,
한일오르듀 1322호

2012년부터 시작한 도서출판 포엠포엠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학계간지 포엠포엠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와 소설(에세이)을 비롯한 문학도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컨베이어에서 찍어내듯 공산품을 만든다는 생각은 지양하고 책 한 권 한 권 정성을 들여 만든다는 마음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해피북미디어

권경옥 대표

T. 051-555-9684
010-8545-9769
E. bookskko@gmail.com
A. 부산시 동래구 우정춘로68번길 22

해피북미디어는 책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문화, 예술 분야를 주력으로 다양한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김창욱 음악평론가의 『청중의 발견』을 시작으로 강미희 무용가의 『일상의 몸과 소통하기』까지 여섯 권의 예술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자연의 가치,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 '만원의 행복'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해광출판사

조준형 대표

T. 051-253-0001
010-3782-5556
E. mwdangbook@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해관로41-1

해광출판사는 지역서점인 문우당서점의 자회사로 출발하여, 현재 30여종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지역의 특성인 해양산업을 주제로 관련 전문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해암출판사

박철수 대표

T. 051-254-2260
010-3589-9175
E. haeambook@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백산길 17
삼성빌딩 702호

도서출판 해암은 부산 출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1993년 설립됐다. 초기에는 수산, 해양 관련 자연과학 교재를 주로 출판했으며 2000년도부터 시집, 수필집, 문학지, 동인지 등 문학 관련 책들을 본격적으로 출판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서와 법문집, 그리고 명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단행본 등의 제작에도 전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서출판 해암은 기획출판물 제작과 도서의 유통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호랑이출판사

허주영 대표

T. 010-3139-8883
E. tigerbooks2014@gmail.com
A. 부산시 중구 해관로 62-1
대양빌딩 302호

호랑이출판사는 일상 속에 가라앉은 이야기를 길어올려 작자와 독자 모두의 존엄을 도모하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별 2018 신간도서 리스트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	출간 연월	출판사
공공작소	현대소설 꼼꼼히 감상하기	이승준 지음	80	6,000	2018.01.	공공작소
	Inside Out	차유화 외 15인 지음	450	25,000	2018.01.	
남이아웃	X IV: 열넷	고소윤, 김수연, 김수현, 최수인, 한에서 지음	150	10,000	2018.12.	남이아웃
	부산, 머물다 2 - 중구	김나영, 이유진, 김기아, 윤도경 지음	76	8,000	2018.12.	
나나드리	임마의 임마(중국 한지에서 만난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강동완 지음	450	22,000	2018.05.	나나드리
	평양 밖 북조선(999장의 사진에 담은 북쪽의 북한)	강동완 지음	540	35,000	2018.09.	
	김정은의 음악정치	강동완 지음	512	25,000	2018.10.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강동완, 고성준 지음	300	21,000	2018.12.	
두손컴	농부와 시인	배갑철 지음	208	12,000	2018.01.	두손컴
	구속사와 히브리서(초보를 떠나서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김인규 지음	580	20,000	2018.02.	
	창산따라 인연	김만수 지음	112	10,000	2018.03.	
	집으로 가는 길	박복남 지음	144	10,000	2018.03.	
	연분홍 아가씨(雅歌書)	최원철 지음	278	15,000	2018.04.	
	동행과 순리의 미학	현형수 지음	124	12,000	2018.04.	
	적도제	이상열 지음	134	15,000	2018.04.	
	서해특정지역	이상열 지음	192	15,000	2018.04.	
	부산의 디자인문화 '예술에 혼을 담다'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김봉진-	김다희, 최장락 지음	88	20,000	2018.06.	
	"디자인-안전을 말한다" (부산국제디자인제 작품집)	최장락 지음	156	20,000	2018.06.	
	가을 꽃바람	변육산 지음	310	12,000	2018.07.	
	낙동강 연가	손순이 지음	164	12,000	2018.07.	
	핫 볼(Hot ball)	이상열 지음	194	15,000	2018.08.	
	늦게 혹은 늦게	이재우 지음	140	12,000	2018.09.	
	소실점 너머에(Photo poem)	김재은 지음 / 사진	132	15,000	2018.09.	
	풀잎의 고요	변중환 지음	120	10,000	2018.09.	
	완도의詩 가락	이종철 지음	148	10,000	2018.09.	
	새소리를 듣다	손영자 지음	112	9,000	2018.11.	
	살이 도였다	박명균 지음	208	12,000	2018.11.	
	옛날, 한 옛날	한국바다문화회 편저	204	10,000	2018.11.	
꽃이 춤을 출 때는	나경심 지음	112	10,000	2018.11.		
악속	김희범 지음	104	10,000	2018.12.		
바람, 침묵의 감각	김미순 지음	144	15,000	2018.12.		
노을이 내게로 왔다	김도우 지음	128	13,000	2018.12.		
시민의제사전 2018	민주시민교육원 '나리학할' 편저	152	13,000	2018.01.	소요-You	
대금 소리	백송취 지음	224	13,000	2018.05.		
부마에서 촛불로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저	320	20,000	2018.10.	두손출판 스튜디오	
싸락눈 향기 날 때 새봄이 온다	신기용 지음	120	13,000	2018.02.		
세계지도(행정)	편집부 지음	1	7,000	2018.04.	두손출판 스튜디오	
바람의 묘비명	박준홍 지음	129	11,000	2018.06.		
문심조용(文心雕龍)	유림 지음 / 황선열 옮김	568	30,000	2018.10.	두손출판 신생	
죽단강 죽단강	조성래 지음	128	10,000	2018.11.		
물의 경전	오정환 지음	160	12,000	2018.12.	두손출판 전영	
바다의 끝	김부상 지음	248	13,000	2018.06.		
나의 친구 나의 멘토	강재훈 지음	160	10,000	2018.08.		

■ 시 ■ 소설 및 에세이 ■ 아동 ■ 인문 사회 자연 ■ 심음 ■ 기타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	출간 연월	출판사	
두손출판 전영	바다의 불	최귀래 지음	128	10,000	2018.08.	두손출판 전영	
	공경 너머	김인철 지음	272	14,000	2018.08.		
	버킷리스트여행	신창선 지음	192	13,000	2018.08.		
	손을 쓰다듬다(드래문화동인지 에스프리 드레 제4호)	변순자 외 지음	248	12,000	2018.09.		
	마음의 이해와 자유	정해경 지음	240	14,000	2018.09.		
	궤도 이탈(가변자선 5호)	정경일 외 지음	160	9,000	2018.09.		
	동화 속 세상 읽기	정해경 지음	256	15,000	2018.10.		
	오후 석 점, 바람의 말	김비주 지음	160	10,000	2018.10.		
	백산에 문학의 안과 밖	서명인 외 지음	312	15,000	2018.11.		
	하이, 빌	김현일 지음	272	14,000	2018.11.		
	다 공부지요	백년어사원 지음	360	14,000	2018.11.		
	박자를 놓치다	박정애 지음	144	12,000	2018.12.		
	하산자들	이윤길 지음	272	14,000	2018.12.		
	역술(무크지 뽀4호)	우은진 외 지음	272	14,000	2018.12.		
	난장이꽃	강정미 지음	112	9,000	2018.12.		
	뽕뽕이 이야기	김영숙 지음	208	12,000	2018.12.		
	살, 꽃을 보듯 별을 보듯	정문숙 외 지음	192	12,000	2018.12.		
	넌나넌나 넌넌넌	정일근 외 지음	231	13,800	2018.06.		두손출판 수요
	유린 이야기	유익서 외 지음	205	13,000	2018.08.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정태운 지음	235	10,000	2018.05.		두손출판 청록문학사
지리산 빈들판	민수호 지음	194	10,000	2018.06.			
흔을 담은 시조항기	심애경 지음	173	12,000	2018.06.			
우편의 이야기 여덟번째	정경삼 지음	167	10,000	2018.07.			
내 마음의 풍경	박연희 지음	137	10,000	2018.08.			
2018석고시조문학26인(양장)	최경식 외 25인 지음	216	15,000	2018.09.			
시의 전당 푸른 원두막 제3집	심예지 외 32인 지음	237	10,000	2018.09.			
자고 가는 바람아	윤주동 지음	145	12,000	2018.09.			
우편의 이야기 아홉번째	정경삼 지음	148	10,000	2018.10.			
달빛 먹는 날	김선보 지음	124	10,000	2018.11.			
거기, 밤바다가 있다	이기택 지음	147	10,000	2018.11.			
꿈속으로 가는 바람	윤주동 지음	170	12,000	2018.12.			
이별 보기와 회망 찾기	이재우 지음	122	12,000	2018.05.	두손출판 무용사		
웃음에는 무게가 없어	강남주 외 19인 지음	216	8,000	2018.11.			
숙명, 그 바다를 사랑한 죄	유기환 지음	124	12,000	2018.11.	두손출판 해성		
현재상 인연들 목상에 들다	박유길 지음	124	12,000	2018.12.			
지금, 이곳에 희망은 있는가?	남송우 지음	232	15,000	2018.01.	두손출판 해성		
왜 성당 다니세요	구용 지음 / 김수안 그림	128	12,000	2018.03.			
마법에 걸린 아이	서하원 지음 / 안기태 그림	160	12,000	2018.08.	두손출판 해성		
이야기가 돌아오는 유럽여행	남태우 지음	304	20,000	2018.10.			
사거리 편지집	구옥순 외 지음	416	20,000	2018.12.	두손출판 해성		
시골버스	구용 지음 / 김수안 그림	136	12,000	2018.12.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	출간 연월	출판사
■	내 얘기를 듣고 싶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저음	136	12,000	2018.02.	도서출판 호밀밭
■	뿔아웃딩	김일철 저음	212	15,000	2018.02.	
■	작은 공간 큰 이야기 7	문화매개 공간샘 저음	200	10,000	2018.02.	
■	광경이마를 100년의 울림 : 생활	광경이마예술마을사업단 저음	224	10,000	2018.03.	
■	세상 속 복음의 향기	강문구 저음	216	14,000	2018.05.	
■	웃생긴 여자의 역사	클로드느 사게르 저음 / 김미진 옮김	364	15,800	2018.06.	
■	요시다 쇼인 시대를 번역하다	김세진 저음	232	15,000	2018.08.	
■	맨땅에 헤딩하기	고금란 저음	260	13,800	2018.08.	
■	언더 더 씨	강종수 저음	304	13,000	2018.09.	
■	말, 얼마나 자라고 있어	김정 저음	256	13,800	2018.10.	
■	독서, 그 풍요로운 생명의 숲	이종섭 저음	232	13,800	2018.10.	
■	구쁘다 이야기 열 조각	곽수아, 김영호, 김진숙, 배익천, 최미선 저음 / 김종원, 김진영, 남서희, 추주희, 홍석진 그림	244	12,000	2018.10.	
■	내 옆에 있는 행복	하창환 저음	272	15,000	2018.11.	
■	당연한 게 어딨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저음	192	13,800	2018.12.	
■	박재혁	안덕자 저음	168	12,000	2018.12.	
■	로컬리티라는 환영	박형준 저음	260	15,000	2018.12.	
■	한술인 줄 있더니 꽃술이더라	관갑정 저음	248	13,800	2018.12.	
■	침대는 예술이다	김주원 저음	172	13,800	2018.12.	
■	엄마와 함께 고전영화 읽기	조수진 저음	196	12,800	2018.12.	
■	나는 고양이병입니다.	김화수 저음	264	13,800	2018.12.	
■	죽으려고 했어	이소리 저음	192	12,800	2018.12.	
■	산타가 누는 집	이정임 저음	240	13,800	2018.12.	
■	불가능한 대화들 - 내 번째 이야기	오늘의문예비평 저음	268	15,000	2018.12.	
■	부산의 다방	부산문화재단 저음	172	12,000	2018.12.	
■	가끔은 사소한 것이 더 아름답다	천성호 저음	218	13,800	2018.08.	리딩소년
■	몽땅몰타 (Montemps Malta)	임왕윤, 장수빈 저음	257	10,000	2018.06.	몽땅 (Mon temps)
■	개포동에서 온 손님	천선희 저음	286	12,000	2018.12.	문장21
■	일산살게 40년, 40개의 대표작	이용홍 저음	334	40,000	2018.03.	비온후
■	나는 개가 되고 싶어 울었다	정경빈 저음 / 그림	170	15,000	2018.12.	
■	무위를 위하여	신지연 저음	153	10,000	2018.12.	
■	위안사물도	박선희 저음 / 그림	125	16,000	2018.12.	
■	이명원 가족의 28일간 유럽여행	이명원, 곽현미, 이영주, 이동주 저음	265	15,000	2018.03.	
■	책 짓는 사람들	지역출판유급 B-LAB 27(김수인 외 23명) 저음	193	8,000	2018.03.	
■	나는 말이 좋아서 일합니다 :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투쟁 백서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 투쟁 백서발간위원회 저음	393	18,000	2018.05.	
■	지리산둘레길 그림 편지	이상윤 저음 / 이호신 그림	256	20,000	2018.02.	
■	산골에서 혁명을	박효연 저음	240	14,800	2018.02.	
■	THE WONDERFUL STORY CLUB	ShinJi Park 저음	150	13,000	2018.02.	
■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저음	226	15,000	2018.02.	
■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병훈 저음	354	25,000	2018.03.	
■	선택	현정길 저음	244	15,000	2018.03.	
■	엄마 사용 설명서	도린 크로닌 저음 / 로라 코넬 그림 / 강도희 옮김	56	16,800	2018.03.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	출간 연월	출판사
■	논어, 그 일상의 정치	정천구 저음	640	35,000	2018.04.	산자니
■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저음 / 김효철 옮김	1184	80,000	2018.04.	
■	거기서, 도란도란	이상성 저음	240	14,000	2018.04.	
■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저음	280	14,800	2018.05.	
■	대학, 정치를 배우다	정천구 저음	420	30,000	2018.05.	
■	나는 장성택입니다	정광오 저음	224	14,000	2018.05.	
■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조해원 저음	256	15,000	2018.05.	
■	깨달음	김종희 저음	304	25,000	2018.05.	
■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마르셀로 무스토 저음 / 강성훈, 문재림 옮김	236	20,000	2018.05.	
■	솔로시티	김중록 저음	132	12,000	2018.06.	
■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저음	256	15,000	2018.06.	
■	습지 그림일기	박은경 저음 / 그림	175	16,000	2018.06.	
■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서광덕 저음	376	28,000	2018.06.	
■	근현대 중국 사상사회론	이연도 저음	320	23,000	2018.06.	
■	중국경제법의 이해	김종우 저음	554	35,000	2018.06.	
■	시인의 공책	구모름 저음	208	13,000	2018.07.	
■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노용석 저음	320	25,000	2018.07.	
■	인도불교의 역사	다케우라 마키오 저음 / 도홍스님, 권서용 옮김	288	20,000	2018.08.	
■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제작론	김정희 저음	232	20,000	2018.08.	
■	나는 강, 강은 나	이성아 저음 / 오차근 그림	104	12,000	2018.08.	
■	다독이는 시간	김나현 저음	222	15,000	2018.08.	
■	서유기 81년 연구	서정희 저음 / 부산대중국소설연구회 옮김	340	20,000	2018.08.	
■	별행들 털 인 마블라	아네테 후스 저음 / 서요승 옮김	264	15,000	2018.09.	
■	새로운 인생	송태웅 저음	160	12,000	2018.09.	
■	영화 열정	리처드 라우노 저음 / 임재철 옮김	318	22,000	2018.10.	
■	마니석, 고요한 울림	페마체덴 저음 / 김미현 옮김	336	15,000	2018.10.	
■	유산	박정선 저음	302	15,000	2018.10.	
■	그날이 올 때까지	김춘복 저음	252	15,000	2018.10.	
■	세상에 나를 추천하라	정광위 저음 / 박규환, 한철민 옮김	224	15,000	2018.11.	
■	부산 탐시 프로젝트	최원준 저음	288	18,000	2018.11.	
■	2°C	김육현 저음	270	20,000	2018.11.	
■	방마다 문이 열리고	최시은 저음	236	15,000	2018.11.	
■	폴리비아 우표	강이라 저음	256	15,000	2018.12.	
■	도시는 정치다	윤일성 저음	418	30,000	2018.12.	
■	해오리 바다의 비밀	조미형 저음 / 박경효 그림	136	13,000	2018.12.	
■	백신 안전 플랜	폴 토마스, 제니퍼 마르굴리스 저음	417	16,500	2018.11.	소림출판사 (서른세개의 계단)
■	꿀벌 편지	김미순 저음	137	9,000	2018.10.	사와사상사
■	참치 하역사	김미순 저음	146	9,000	2018.10.	
■	벽이 벽 너머에게	강준철 저음	147	9,000	2018.11.	
■	중국 일주 배낭여행	강중구 저음	400	20,000	2018.07.	육일문화사
■	아침을 깨우는 소리	헤카스님 저음	312	12,000	2018.10.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	출간 연월	출판사
■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의 독서안내	다치바타 아키라 지음 / 이진아 옮김	332	15,000	2018.01.	인디텍이피
■	사라진 그림자(상)	심우 지음	408	11,000	2018.03.	
■	사라진 그림자(하)	심우 지음	388	11,000	2018.03.	
■	오토바이로 모기를 잡아라	김정령 지음	296	15,000	2018.04.	
■	오늘은 일진도 좋고	허라다 마하 지음 / 김완 옮김	360	15,000	2018.06.	
■	무지경	반시연 지음	408	13,000	2018.06.	
■	들꽃처럼 못밭처럼	최만공 지음	144	10,000	2018.02.	작가마을
■	허양의 신비	선영자 지음	152	10,000	2018.05.	
■	참 소중한 당신	허일만 지음	160	12,000	2018.05.	
■	손의 온기	윤연리 지음	124	12,000	2018.05.	
■	바늘 끝 여정	변송 지음	126	10,000	2018.05.	
■	그림자를 읽는다	최인현 지음	96	9,000	2018.05.	
■	혹시 시인이십니까	신욱진 지음	120	7,000	2018.05.	
■	벌목 잡힌 그리움	주명욱 외 지음	176	비매물	2018.07.	
■	흙씨 하나가 세상을 치켜든다	김명옥 지음	108	9,000	2018.07.	
■	망부석	김석주 지음	142	10,000	2018.08.	
■	부리 찾기	김석주 지음	158	10,000	2018.08.	
■	걸레	정소슬 지음	124	10,000	2018.09.	
■	왼쪽의 감정	이진해 지음	144	10,000	2018.10.	
■	감천에서 매창을 만나다	보우 지음	158	12,000	2018.10.	
■	침묵의 뒤	김희자 지음	126	10,000	2018.12.	
■	불면은 적막보다 깊다	김정순 지음	134	10,000	2018.12.	
■	여정의 풍광	이광수 지음	126	10,000	2018.12.	
■	고요는 어둠 속에 자란다	이소정 지음	96	9,000	2018.12.	
■	물소리를 듣는 이끼	김시은 지음	84	9,000	2018.12.	
■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가리라	최옥 지음	144	10,000	2018.12.	
■	흰모래, 일곱빛 실험이야기	김성아 외 21인 지음	344	15,000	2018.11.	참과학
■	영화정화	하스미 시게히코, 구문사와 기요시, 아오야마 신지 지음 / 조장민 옮김	296	18,000	2018.04.	책읽는저녁
■	술을 만나고 싶다	강영환 지음	288	15,000	2018.01.	책담쟁이
■	식탁 위의 낙엽	김순여 지음	144	10,000	2018.04.	
■	다시 지리산을 걷다	강영환 지음	144	10,000	2018.05.	
■	동채안고	정성진 지음	432	25,000	2018.06.	
■	무척억에 멈춘 비	박무섭 지음	144	10,000	2018.09.	
■	그림성에 들다	손상현 지음	144	10,000	2018.10.	
■	크산티페	김원용 지음	128	10,000	2018.10.	
■	풀이 넘어왔다	조규옥 지음	128	10,000	2018.10.	
■	근대연출론	클레어턴 해밀턴 외 지음 / 강수진 옮김	160	15,000	2018.10.	
■	날아다니는 포옹	김원용 지음	144	10,000	2018.11.	
■	시월 노을	노장현 지음	144	10,000	2018.11.	
■	당신을 읽는다	그림나무 지음	192	15,000	2018.11.	
■	술과 함께	강영환 지음	112	10,000	2018.11.	
■	흔돈을 비켜 가다	박윤자 지음	144	10,000	2018.12.	
■	붉은 색들	강영환 지음	128	10,000	2018.12.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	출간 연월	출판사
■	시 한 구절의 힘	이규식 지음	256	13,000	2018.01.	포럼포럼
■	흔적 극장	권애숙 지음	120	10,000	2018.04.	
■	장미 씨,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	최류빈 지음	156	10,000	2018.05.	
■	기만히 먼저 찾는 오후	권순혜 지음	110	10,000	2018.10.	
■	자네에 오는 사람들	한지혜 지음	136	10,000	2018.11.	
■	폴리아모리	후카미 기쿠에 지음 / 각규환, 진효하 옮김	236	15,000	2018.03.	
■	선박기관사면접시험-이론과 문제	강희준,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264	28,000	2018.01.	해광출판사
■	부산도로지도(책자)	편집부 지음	189	28,000	2018.01.	
■	4.5급 항해사 이론과 문제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690	33,000	2018.01.	
■	선박자동화-기초편	진승환 지음	98	13,000	2018.02.	
■	Maritime english communications based on smcp student coursebook	박진수, 하원재 지음	173	13,000	2018.02.	
■	1.2 항해사 이론과 문제 1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284	26,000	2018.08.	
■	1.2 항해사 이론과 문제 2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438	32,000	2018.08.	
■	선상 해사한국어-외국인 선원을 위한	박진수, 박경은 외 지음	262	비매물	2018.12.	
■	관계사주학	최덕영 지음	190	32,000	2018.02.	
■	아름다운 인연	정연수 지음	164	10,000	2018.03.	
■	중이 중소리 내야지	우탁 지음	143	10,000	2018.03.	
■	작은 섬 가를듯	이상일 지음	127	10,000	2018.04.	
■	당신을 어떡해 어떡해	서연나 지음	191	15,000	2018.04.	
■	참 나는 어디에	우탁 지음	271	18,000	2018.05.	
■	사주팔자 나의 바코드	서암 지음	271	20,000	2018.05.	
■	불고 춤추는 그곳에	김인태 지음	115	13,000	2018.05.	
■	고운 최치원	최정운 지음	211	20,000	2018.07.	
■	내 고독의 무게	차달숙 지음	286	13,000	2018.07.	
■	발자국	정환식 지음	207	20,000	2018.07.	
■	머물고 싶은 순간	윤기선 지음	208	13,000	2018.08.	
■	여나 만나 인생경매장	송진현 지음	158	13,000	2018.09.	
■	순회하는 강	조영희 지음	208	15,000	2018.10.	
■	주목처럼 천년을	황성창 지음	211	13,000	2018.10.	
■	자갈치	양원식 지음	139	10,000	2018.10.	
■	대효강산	양원식 지음	127	10,000	2018.10.	
■	별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손인환 지음	143	12,000	2018.10.	
■	공작지	권명해 지음	135	10,000	2018.10.	
■	대숲에 부는 바람	박근호 지음	128	10,000	2018.11.	
■	박물관을 읽다	신규범 지음	211	13,000	2018.11.	
■	친란한 슬픔덩어리	박희선 지음	192	13,000	2018.11.	
■	살이 어렸다고 돌아온다면	신문호 지음	201	10,000	2018.11.	
■	오래되어 좋은 것	배병채 지음	203	13,000	2018.11.	
■	시가 부르는 세상	손은정 지음	142	13,000	2018.12.	
■	새벽길	차정연 지음	127	13,000	2018.12.	
■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1	수요자포럼 지음	163	12,000	2018.05.	호랑이출판사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 출판 시리즈 총서 안내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거리를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부산다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간행물로 발간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권



2015.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부산의 시장』

2권



2016. 세월을 머금다 숨씨를 담다
『부산의 점포』

3권



2016. 생각을 그리다 문화가 되다
『부산의 만화』

4권



2017.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의 마을버스』

5권



2018.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의 다방』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안내

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 참여(2011년)를 계기로 시작되어, 2014년부터는 독서인문학 동아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인문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독서인문학 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동아리 지원뿐만 아니라 독서·인문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인문학 동아리 지원

- 2014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6개 단체 선정
- 2015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6개 단체 선정
- 2016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5개 단체 선정
- 2017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30개 단체 선정
- 2018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0개 단체 선정

가을독서문화축제 주관

- 2016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진행
일시: 2016. 10. 15.(토) ~ 16.(일) / 장소: 부산교육대학교
- 2017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진행
일시: 2017. 09. 02.(토) ~ 03.(일) / 장소: 청소년북합문화센터[놀이마루]
- 2018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진행
일시: 2018. 09. 08.(토) ~ 09.(일) / 장소: 청소년북합문화센터[놀이마루]

2018년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 [동아리] 2018년도 독서인문학 동아리 지원
- [출판사] 『부산 출판사 시간 도서』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 [서점] Book Talk 지원, 독립서점 지도 제작
- [인문단체] 환경, 교육, 예술, 도시, 공동체 관련 강연, 포럼 등 지원
<도시의 재구성> 1회~5회 진행
- [정책포럼] 인문정신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

2019년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현황

- [출판사] 『2018년 부산 출판사 시간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 [인문단체] Book Talk 지원
환경, 교육, 예술, 도시, 공동체 등 인문활동 지원
- [정책포럼] 인문정신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발행인 강동수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19. 5. 31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등록번호 2019-008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www.bscf.or.kr

제작 

주관 

주최 

©2019부산문화재단

-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자료마당 > 부산출판도서]

-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부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부산문화재단

-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자료마당 > 부산출판도서]
-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부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